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국가: 역사에서국가의역할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국가: 역사에서국가의역할
1896

kr.theanarchistlibrary.org

1896

차례

I	3
II	5
III	9
IV	14
V	18
VI	21
VII	26
VIII	29
IX	34
X	40

역사는유일한, 중단되지않는발전과정을제시하지는않는다. 때로발전은세계의한부분에서는중단되고, 다른부분에서재개되기도한다. 이집트, 아시아, 지중해연안, 중앙유럽은차례로역사발전의무대였다. 매번발전은원시종족으로부터시작되었다. 그후에자유로운도시들의시대가등장했고, 마지막으로국가의시대가왔다. 국가의시대에발전은일정기간계속하다가그후에는급속히소멸되었다.

이집트에서문명은원시종족사회에서시작되어, 마을공동체단계에도달하였고, 그후에자유도시의시기를경험했으며, 나중에이르러서는국가의형태를갖게되었다. 그리고이국가는일시적인개화이후에나라의멸망을초래하였다.

발전은아시리아, 페르시아, 팔레스타인에서다시시작되었고, 다시원시종족, 농촌공동체, 자유도시, 강력한국가의단계를지나멸망에이르렀다!

새로운문명은그리스에서발생하였다. 다시원시종족으로부터시작하여점차농촌공동체를거쳐, 그리스문명은공화도시의시기로들어갔다. 이단계에서그리스문명은완전히개화하게되었다. 그러나동쪽으로부터동방전제전통의독을품은바람이불어왔다. 전쟁과승리는알렉산드로스의마케도니아제국을창조하였다. 국가가수립되어문명으로부터생명의즙을빨아들이기시작하였다. 국가의끝, 즉죽음이도래할때까지!

그때문명은로마로 옮겨갔다. 이곳에서우리는다시원시종족으로부터의태동을만나게된다. 그다음에는농촌공동체와자유도시가뒤를잇는다. 다시이단계에서로마문명은절정에이른다. 그러나다음에국가, 제국이등장하고이와더불어끝, 죽음이왔다!

로마제국의폐허위에서문명은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스칸디나비아족사이에서다시태어났다. 농촌공동체를형성하기전까지원시종족들은천천히자신들의제도를만들어갔다. 그들은 12 세기까지이단계를살았다. 그때공화적자유도시들이생겼다. 이도시들은인류지혜의찬란한개화를실현하였다. 이에대해증명하고있는것은건축가들의기념물, 예술의발전, 우리의자연과학의토대를놓은발견들이다. 그러나그후에국가가무대에등장하였다. 다시죽음이왔을까? 그렇다, 그것은죽음혹은재생이라할수있다! 우리가자유롭고반국가적인토대위에서사회를재건할수없다면그것은죽음이다.

둘중의하나. 국가는폐지되어야하고, 그러한경우에정력적인, 개인적인그리고집단적인주도권에기초한수천의중심에서새로운삶이시작될것이다. 혹은국가는개인과지방적삶을압살할것이다. 국가는인간활동의모든영역을지배하고, 권력장악을위한전쟁과내적인투쟁을수행하고, 폭군들을교체하기만하는피상적혁명을일으킬것이다. 그리고피할수없는끝, 죽음이온다!

스스로선택하라!

I

지혜를 흐릿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역사과정속에서 서서히 제작되었다. 그러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낡은 기계, 낡은 메커니즘이 기계처럼 새로운 역할에 유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즉 그것들이는 닷없이 무기와 기반이 되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경제적 기초 위에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고, 사회의 각성과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역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사회주의의 폭넓은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상상인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현대사회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문제는, 가끔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노동의 모든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장로들 혹은 역장에 대한 주민들 각각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수공업자들, 농촌마을들, 도시들, 주들 사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 공장, 철도, 농촌마을, 식료품창고, 소비와 생산, 분배에서 이 모든 것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거리에서, 모든 마을에서, 공장 혹은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그룹속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조직된 정신이 각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최초로 현대사회 조직에, 상업 혹은 행정제도에 손을 대기로 결정한 그 시간부터 개인들과 인간 그룹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민중적 창조적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는 이 거대한 과업을 국가의 틀속에서 억지로 밀어 넣기를 원한다. 또한 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속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본 것처럼,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개인의 억압에, 모든 자유로운 조직화와 자유로운 창조의 파괴에, 모든 개인적 자기주도에 대한 증오에 그리고 **유일한** 이념의 (이유 일한 사상은 필연적으로 평범성의 이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승리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국가 혹은 메커니즘으로부터 거대한 변화의 실현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들은 명령을 통해, 선출된 다수를 통해 모든 사회적 개혁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우리 문명의 역사에는 두 흐름, 두 적대적인 전통이 있다. 그것은 로마적 전통과 민중적 전통, 황제적 전통과 연방적 전통, 권력의 전통과 자유의 전통이다. 그리고 거대한 사회혁명 전야인 지금도 이 두 전통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민중적 흐름 혹은 정치적 종교적 지배를 열망하는 통치 지향적 소수의 흐름, 서로 싸우는 이 두 흐름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선택은 이루어졌다. 우리들은 자유로운 합의에,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주도에, 필요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기초한 조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흐름에 찬성한다.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면 교회법과 황제 권력의 로마 전통을 고집하게 놔두어라!

「국가 - 역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문의 주제로 선택할 때, 나는 국가의 이념, 본질, 과거의 역할, 국가가 미래에 갖게 될 의미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서 언급되는 요구들에 대해 생각했다.

다양한 성격의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파들에서 즉, 기질, 사유방식, 특히 다가오는 혁명에 대한 확신에서 차이를 보이는 분파는 두 경향으로 구분된다. 한쪽은 대부분의 국가 기능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고, 혁명을 위해 이용하면서 국가를 수단으로 사회혁명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다른 쪽은 우리와 비슷하게, 국가는 현대적인 국가 체제 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국가 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본질 자체가 사회혁명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즉 국가는 자유와 평등에 근거한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형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국가의 개조 대신,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추구한다.

분명 차이는 매우 크다. 현재 철학과 문학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회 활동에서 싸우는 두 흐름은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통용되는 개념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지리멸렬하다면, 조만간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사회의 삶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는 순간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때문에 늘 현대 국가를 공격하는 우리들에게 국가 탄생의 기원을 밝히고, 국가의 역사적 역할을 연구하여 국가를 그보다 앞선 제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가 ‘국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합의해야 한다. 독일에는 **국가와 사회**를 혼동하는 학파가 있다고 한다. 개인과 개별 지역의 자유

¹ 나는 1896년 볼파리에서 정된 강연을 위해 이 글을 썼다. 그러나 프랑스에 입국할 때 체포되어 추방되었기 때문에 강연을 할 수 없었다. 당시의 강연 원고를 약간 다듬어 논문으로 만들었다. (크로포트킨)

에 대한 국가의 억압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여기는 프랑스 연구자들도, 심지어 진지한 독일 사상가들도 국가와 사회를 혼동하고 있다. 바로 이로부터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적 파괴를' 원하며, '개인 전체의 영원한 투쟁으로의 회귀'를 선포한다는 귀에 익은 비난이 나타난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인 '국가'와 '사회'를 혼동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역사 분야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과들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사회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유럽 민족들 사이에 국가는 가장 최근에 생긴 16세기 이후에 발전된 현상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류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는 지방적 자유와 삶이 아직 국가에 의해 억압당하지 않았던,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체와 자유 도시에 살았던 때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채택한 여러 형식들 중 하나일 뿐이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념들은 어떤 식으로 혼동될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정부가 혼동되는 경우도 비밀히 존재한다. 국가는 정부 없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며, 때로 사람들은 국가의 폐지가 아니라 정부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는 다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개념을 대표한다. 국가의 개념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존재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지배를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 즉 통치 지역의 집중화, 사회적 삶의 많은 기능들을 몇몇 혹은 전체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특수한 차이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국가의 기원을 연구하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가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다.

고대로마 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였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모든 법전문가들의 이상으로 남아 있다. 제국의 기관들은 광범위한 영토를 그물처럼 덮었다. 경제 생활, 군대 행정, 사법, 부,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 - 모든 것이 로마에 집중되었다. 법률, 재판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총독, 신들은 로마로부터 나왔다. 제국의 모든 삶은 원로원으로, 후에는 전지전능한 제국의 신인 황제에게로 향했다. 각 지방과 주변 지역에는 작은 규모의 신전과 로마 전제 권력의 지방 정부가 있었고, 모든 지방의 삶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일한 법, 로마가 제정한 법이 제국을 통치하였다. 이 제국은 시민들의 연합이 아니라, 신민들의 집합체였다.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법률가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이 제국의 단일성, 법의 단일한 정신, 조직의 의미와 조화에 매혹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답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혹은 사회 혁명을 가련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상상해서 사회주의적 지향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프랑스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보자. 형식은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제 3 공화국은 본질상 여전히 왕정 체제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프랑스를 공화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 제 3 공화국을 비난한다. 나는 제 3 공화국이 사회 혁명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3 공화국이 공화국의 풍속과 공화국의 정신조차 도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풍속의 민주화 혹은 계몽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 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 것들은 모든 곳에서,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시대 정신의 억압이 심했던 유럽 군주국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이런 이상한 국가 체제, 즉 공화적 군주국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프랑스가 30년 전과 같은 성격의 국가였고, 여전히 그런 국가란 사실에서 연유한다. 통치자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로마 제국을 모델로 프랑스에 창조된 거대한 관료제는 살아남았다. 바람에 큰 길가의 나무가 쓰러지면,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바퀴는 전처럼 5~10 장의 서류를 교환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서류 위의 도장은 변했지만, 국가와 국가의 정신, 기관, 지역적 중앙 집권화와 기능의 중앙 집권화는 변함없이 남아 있다. 더구나, 모든 기생충이 그런 것처럼 이들은 매일 점점 더 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적어도 진실한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적 의미의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의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도 한 스승으로 오랫동안 그것에 만족해왔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다.

낡은 조직을 폐지하고, 국가를 폐지하고, 농촌 공동체, 자유 노동 조합 등의 사회 단위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연합 형식을 창조하는 대신에, 그들은 '낡고 이미 존재하는 조직들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역사상의 제도가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작동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제도는 고유한 발전의 길을 간다는 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이 제도에 흡수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아직 사회의 모든 경제적 관계들의 변화는 아니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몇 가지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만 있었다.

이런 완전한 실패와 가련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중에 의한 국가 권력의 쟁취만으로도 충분히 사회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낡은 기계, 낡은 메커니즘은 자유를 파괴하고, 개인을 노예화하며, 박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모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예적 사고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인간의

몸을의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창조한 경제 체제의 추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독재와 국가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X

이 글에서는 피상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역사에서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본질상 국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처럼 여러분도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모든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기관처럼 사회 제도의 발전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한 기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국가 폐지의 불가피성이란 결론에도 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합을 방해하고, 지방의 자기 주도적 발전을 가로막고, 존재하는 자유를 교살하고, 새로운 자유의 생성을 방해하는 일,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이 모든 일들의 수단이 된 제도들은 국가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제도들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한 제도들이 지금까지 한 것에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결론에 대한 답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어린애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국가는 있다. 국가는 존재하고 있으며 준비된 강력한 조직이다. 그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면, 왜 그것을 폐지해야 하는가? 사실, 국가 조직은 해롭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조직이 착취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중의 손에 떨어지면, 왜 선한 목적을 위해 민중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은 전제專制를 해방의 무기로 바꾸려고 했던 실러가 쓴 포자 후작의²⁴ 꿈이거나, 가톨릭 교회로부터 사회주의의 지렛대를 만들려고 했던 줄라의 소설 『로마』의 프로만 수도원장의 꿈일 뿐이다!

²⁴ 역주 - 실러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의 비극 「돈카를로스 (Don Karlos)」 의 등장인물.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분열,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야 만족의 침입,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지방의 소멸, 중앙으로부터 확산된 국가적 타락은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제국의 폐허 위에 새로운 문명, 즉 우리의 문명이 태어났다.

고대 동방의 역사는 제쳐두고, 신생야만 문명²의 발생과 성장을 - 이 신생야만 문명이 지금 우리의 현대 국가를 탄생시킨 그 시점까지 - 연구한다면, 국가의 본질은 완전히 명백해질 것이다. 심지어 그 본질은 우리가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 왕국, 동방의 전제 왕권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것보다 더 명백해질 것이다.

II

지난세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기원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우선 인간은 작은 가족을 이루어 살았고, 이들 가족들 사이의 적대감이 일반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다 어느 멋진 날이 끝없는 투쟁의 불편함을 확신한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분리되어 있던 가족들은 서로 합의하여 사회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권력에 복종하였다. 초등학교부터 배운 것처럼 이 권력이 오늘날 모든 인류 진보의 원천이며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부들은 지금까지도 지상의 소금이 라는 이고상한 역할을, 인류의 중재자이며 교화자의 역할을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적어도, 모든 교과서와 심지어 많은 철학 논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매우 적게 알려진 시대에 만들어져, 지난 100 년 동안 지배적인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백과전서파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왕권 신수설과의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였음을 인정해야

² 역주 - 크로포트킨이 ‘신생야만 문명’이라 표현한 것은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에 나타난 신생 유럽 문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야만’으로 번역한 ‘Barbarian’은 어원적으로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를 의미하며, 비그리스인 혹은 비로마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Barbaria/barbarus’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 이 단어는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럽의 중세를 열었던 게르만족을 주로 의미하며, 크로포트킨도 이런 관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이론이과거에어떤공을세웠건간에, 오늘날우리는그것이오류임을인정하고거부하여야한다.

몇몇맹수들과멸종되고있는종을제외하면, 실제로모든동물들은사회를이루며산다. 사회를이루어살고있는동물들은생존을위한투쟁에서비사회적동물보다언제나유리하다. 이들은동물의위계에서가장높은위치 차지한다. 최초의유인원들이이미사회를이루며살았다는것은이제의심의여지가없다. 사회는인간에의해서고안된것이아니다. 사회는최초의유인원들이나타나기이전부터존재했다.³

또한인류학이완벽하게증명하고있는것처럼, 우리는특정가족이아니라 **씨족** 혹은 **종족**이인류의출발이되었다는것을알고있다. 현재우리가갖고있고, 고대유럽전설에서발견되는가부장적가족은훨씬후에나타났다. 그이전에인간은이미수천년동안씨족혹은종족으로살아왔다. 이첫번째기간동안 - 편의상이기간을미개종족혹은원시종족시대라고부르도록하자 - 가부장적가족제도에앞선일련의제도, 습관혹은사회적관습들이이미인류를위해만들어졌다.

사회를이루며살고있는많은포유류속에고립된가족이없는것처럼, 고립된가족은원시종족사회에존재하지않았다. 종족은오�히려세대에따라구분되었다. 서로다른세대에속한남녀사이의혼인을허용하지않고, 동일세대내에서만혼인을허가하는관습이인류의기억에서사라진, 아득한옛날부터생겼다. 이시기에대한흔적들은지금도몇몇종족에게서발견된다. 또한그런흔적들은더높은단계의발전을이룬민족들의언어, 풍속, 미신에서도발견된다.

이시기에서유재산의축적은가능하지않았다. 종족의구성원들개인에속한것은그가족은후에모두시체와함께소각되거나폐기되었기때문이다. 이것은지금까지도영국의집시들사이에서행해지고있다. 이풍속의흔적들을우리는문명화되었다는모든민족들의장례의식에서도찾을수있다. 중국인들은망자가소유했던물건들을종묘모형으로만들어소각한다. 우리에게는말과갈그리고혼장이전사자들의뒤를따르게하는풍속이있다. 이풍속의의미는잊혀지고없지만, 형식은보존되고있다.

원시인들은인명을경시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살인과유혈을싫어했다. 인간뿐만아니라, 곰과같은몇몇동물들의피를흘리는것까지도매우큰범죄로여겼으므로, 잘못을범한사람은동일한양의자기피로흘린피에대해보상해야했다.

이렇게자기종속의구성원에대한살인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었다. 예를들어, 우리는석기시대인들의후예로서지금까지극지방에살

³ 이러한입장에대한더상세한설명은내저서인 『상호부조론 (Mutual Aid), 2 판, 1904』 와이것의독일어번역인 『상호부조론 (Gegenseitige Hilfe), Leipzig, 1904』 에서볼수있다.

들에대해생각해보라. 전쟁에서승리하든지패배하든지이상관없이, 전쟁이어떠한노예상태를초래하는지우리모두는알고있다.

그러나내가열거한모든악중에서가장나쁜것, 그것은학생시절과그이후의삶에서국가가우리에제공하는교육이라할수있다. 국가의교육은우리의두뇌를왜곡시킨다. 그결과우리안에자유개념자체가사라지고, 노예개념으로대체된다.

혁명이라고자처하는이들중에서많은사람들이아나키스트들을몹시미워하는것은안타까운일이다. 아나키즘의자유개념이자유에대한편협하고괴상한, 국가의정신이침투된교육을통해습득한개념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서그들은아나키스트들을미워한다. 요즘우리는발걸음을땀때마다그런사람들을만나게된다.

이런현상은국가가젊은이들의생각속에교묘하게자발적인노예의식을주입했고지금까지도주입하고있기때문이다. 목적은국가에대한국민들의종속을영원히확고하게하는것이다.

그들은자유에대한사랑으로충만한철학을가톨릭·국가철학으로교살시키기위해온갖노력을다하고있다. 그들은역사를왜곡하고 (메로빙거왕조, 카롤링거왕조그리고루릭왕조에대한황당한이야기를전하는첫페이지부터, 자코뱅당을찬미하는마지막페이지까지), 민중이사회제도의창조에서수행한역할에대해서는침묵한다. 그들은머리가돌인교회와국가라는우상의이익을위해심지어자연과학까지도왜곡한다. 군인, 성직자, 사형집행인의삼자연함을정당화하기위해개인심리그리고사회심리를매번왜곡한다.

수세기동안교회혹은성서에대한복종을설교했던도덕이론들도이제는그고삐를벗어버리고국가에대한복종을설교하고있다. “이웃들에대한관계에서그대들은그어떤직접적인무도갖지않는다. 그대들에게는서로사랑하는마음도없다. 그대들의모든의무는국가에대한의무다. 국가가없다면너희들은서로의목을물어뜯을것이다.” 스스로를 ‘과학’이라 부르는새로운종교는우리를이렇게가르친다. 그리고한편으로종교는여전히낡은로마와황제의신에게기도한다. “이웃, 친구, 공동체구성원, 시민, 그대는이런것을잊어야한다! 그대는국가의기관들을통해서만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어야한다. 그리고그대들모두는하나의선행만을훈련해야한다. 그것은국가의노예가되는것을배우는것이다. 국가는그대의신이다!”

교회, 대학, 언론, 정당들도국가와훈육을찬양하였다. 그리고이찬양은아주성공적으로수행되어서, 혁명가들조차도이새로운우상을감히직시하지못한다.

현대의급진주의자는뺏속까지중앙집권주의자, 국가주의자그리고자코뱅주의자다. 그의발뒤꿈치를사회주의자들도따라가고있다. 15세기말플로렌스인들은귀족들의전횡에서벗어나기위해국가독재의손에

득하는데거의성공했다. 국가는하루 8 시간노동에관한법률을대가로고 용주와의갈등에서노동자들이의무적인조정을받아들이도록강요하려고한다. 이러한국가가설치한탓에걸리지만않는다면노동자들은파업의 권리를곧완전히획득할것이다.

100 년이상의치열한투쟁! 고통이큰만큼, 그만큼많은노동자들이감 옥에서죽어갔고, 호주로유형을떠났으며, 살해당하고, 교수형을당했다! 이모든것은조합을결성할권리를회복시키기위한것이였다. 다시반복하자면, 그권리는국가가사회에무거운손길을뻗지못하던때에자유 인과노동모든인간들이소유했던바로그권리다.²³

이러한운명에처한것은노동자들만이아니였다. 상업조합의결성권을획득하기위해부르주아국가와치러야했던투쟁에대하여생각해보라. 국가는독점권을확보하여중복들의이익을보장하고, 국고를가득채울수 있을때에만조합결성권을위임하였다. 국가가학술원, 대학, 교회를수단으로명령하는것과다르게말하고쓰거나심지어생각할권리를위한투쟁 들! 다만읽고쓰는것만이라도배울권리를위한투쟁! 국가가유보하고있는 권리, 국가가사용하지않는권리, 심지어함께즐거워할권리는? 재판관을선택하는것, 혹은중세에사람들은어떤재판관에게서어떤법에따라 재판받기원하는지를스스로선택할수있었다는것은두말할것도없다. 또한여전히우리앞에있는투쟁, 즉종교재판과동방의전제주의정신속에탄 생한혐오스런형벌의책이, 형법이란이름으로알려진그책이소각되는날 이오기전에있을투쟁은두말할것도없다.

혹은조세시스템을보라. 이것은순수하게국가로부터기원한제도로서, 국가가소유한강력한무기가되였다. 국가는유럽전역에서뿐만 아니라신생국인미합중국에서도이무기를사용하고있다. 국가는이무기로국민대중을권력의휘하에두고, 자신의동조자를이롭게하며, 지배하는소수를위해다수를파산시키고낡은사회적불평등, 낡은카스트제도를유지 하고자한다.

전쟁을생각해보라. 국가는전쟁없이만들어질수도존재할수도없다. 국가를이루는한지역이이웃지역과대립하는이해를갖는것을허용하는 순간전쟁은불가피하게된다. 우리를위협하는과거와미래의전쟁들에대 해, 무역시장쟁탈을위한전쟁들에대해, 식민제국을건설하기위한전쟁

²³ 심지어는지금도, 바로 1903 년에, 보수당정부에서파업권은다시박탈되였다. 최고심판기관인영국의상원은다음과같은결정을내렸다. 파업이났을때, 노동조합이파업노동자를대체하기위해투입된노동자들을만류하였다는것이 - 힘으로위협하지않고, 보초가단지만류하기만해도 - 증명된다면, 노동자는고용주가입은손실을배상하여야한다. 유명한테프베일 (Taff Cale) 파업에서도노동조합은고용주들에게 5 만파운드 - 50 만파운드 이상을 - 배상하였다고한다. 최근에도그와유사한일이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은 30 만파운드를지불하겠다고약속한후에야소송을끝낼수있었다.

고있는이누이트혹은에스키모들에게서그러한예를볼수있다. 그러나 서로다른기원, 피부색, 언어를갖는종족들이유랑중에서충돌하게되면, 종종그들사이에전쟁이일어나기도하였다. 하지만그당시에이미사람들은이충돌을가능하면완화시키려고애썼다. 메인 (H.Maine), 포스트 (August von Post), 니스 (E.Nys) 의연구가보여주듯이, 후에국제법의기원이될수있는관습들은이미그당시에나타나기시작했다. 예를들면, 마을주민들에게미리경고하지않고마을을공격해서는안되었다. 또한어느누구도여인들이물을길러다니는길에서절대살인을감행하지않았다. 종족사이에평화를협상할때, 살해당한사람이많은쪽은다른쪽에서그에상응하는보상을받았다.

그때에는하나의일반원칙이다른것들을지배하였다. ‘너희들이우리들중의하나를죽이거나상처를입혔다. 때문에우리에게는너희들중의하나를죽이거나똑같은상처를입힐권리가있다.’ 이것은누구라도상관없었다. 왜냐하면종족전체가구성원들각각의행동에대해책임을졌기때문이었다. “피에는피, 눈에는눈, 이에는이, 상처에는상처, 목숨에는목숨 (코니히스바르터 [L.Königswarter] 가정확하게지적한것처럼“그러나그이상은아니다.”) 이라는성경의유명한구절은바로이러한관습으로부터유래하였다. 정의에대한이사람들의관념은바로그랬다. 우리가그들앞에서특별히우쭐해할것이아무것도없다. 지금까지우리형법을지배하는‘목숨에는목숨’의원리도수많은유산들중의하나일뿐이기때문이다.

이렇게, 원시시대를거치는동안일련의사회적제도들이만들어졌고 (이들중많은것들은일단제쳐두도록하자), 종족들의총체적행위규범들이 (물론구두로) 정해졌다. 사회규범의핵심내용을유지하기위해서는풍습, 관습, 설화說話의힘만으로도충분했으며, 다른어떤권력도존재하지않았다.

물론원시인들에게도일시적인지도자들이있었다. 마술사와비블부르는주술사들은, 즉당시의학자들은자신의종족들을지배하기위해자연에대한실질적인혹은그럴듯해보이는지식을사용하려고노력하였다. 설화에담긴속담과노래를다른사람들보다잘기억하는사람들이바로그렇게영향력과권력을획득하였다. 이미당시에‘지식이있는사람들’은인간을지배할권리를강악하려고애를썼으며, 선택된자들을제외하고는어느누구에게도자신의지식을전수하지않았다. 우리가알고있는것처럼모든종교, 심지어모든예술과기술들도처음에는다양한‘비밀들’에싸여있었다.

이렇게종족들이충돌하고이동하는기간에는가장용맹하고용감한특히피많은자들이일시적지도자가되였다. 그러나법의수호자, 전투의지휘자, 마술사들사이의연합은아직당시에는없었다. 때문에벌과개미사

회에서처럼 혹은 현대의 파타고니아인⁴과 에스키모들의 경우처럼, 원시 종족들 사이의 국가는 언급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서 수천 년을 살았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야만 족들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바로 그러한 상태로 부터 빠져나왔다.

기원후 처음 수백 년 동안 중앙 아시아와 북 아시아에 거주하던 종족들과 종족 연합들 사이에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이웃 종족 들로부터 압박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고원지대로부터 이동을 시작하였다. 강과 호수의 물이 갑자기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평원과 유럽을 향해서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종 족들을 밀어내며 점차 서쪽으로 옮겨져 갔다.

이 이동의 시기에 기원과 언어가 서로 다른 몇몇 종족들은 섞이게 되었 고, 그 당시 대다수 유럽의 원시적 원주민들에게 존재하던 원시 종족의 관습 은 불가피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원시 종족 연합의 기초는 공통의 조상과 그 들에 대한 숭배에 있었다. 그러나 이동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여러 종족들사 이의 전쟁 속에서 형성된 집단들 사이에도 대체 어떤 기원의 공통성이 존재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몇몇 종족들에서 가장 적가 족이 탄생하고 있었 다. 이가 족은 이웃 종족에게서 탈취하거나 약탈한 여성들을 몇몇 인물이 소 유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과거의 관계는 끊겼고, 완전한 파멸을 (그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 진 많은 종족들이 그러한 운명을 겪었다)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토지의 공동 소유, 즉 각각의 종족들이 정착한 지역의 공동 소유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았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역, 이러저러한 계곡과 구릉들의 소유는 새로운 협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조상신은 모든 의미를 상실하였다. 새로운 지 역의 계곡, 강, 숲의 신들이 조상신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새로운 연합에 중 교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다른 종교의 유산들을 기꺼이 수용했던 기독교는 훗날 모든 곳에서 지역 고유의 성인들을 만들어냈다.

그때 이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가족들로 구성된 농촌 공 동체는 토지의 공동 소유에 의해 결합되었고 다음 수 세기 동안 민족 연합을 위해 필수적인 연결 고리가 되었다. 농촌 공동체는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 카의 광대한 지역에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게르만인, 스칸디나비아인, 슬 라브인 등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야만인들도 그런 체제 아래 살았다. 야만

이것이 바로 국가가 산업에 개입한 결과였다. 국가가 한 일이란 것은 고 작 노동자들을 경시하고 탄압하며,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도시에 빈곤 의 씨앗을 뿌리고, 수백만 농촌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산업 노예시스 템을 만든 것이었다.

‘과학적’ 경제학자들은 옛길드의 이러한 보잘 것 없는 잔재들, 국가에 의 해 억압당하고 교살당한 이 조직들, 국가 행정 기관의 무익한 부분들을 무지 때문에 중세 길드와 혼동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산업을 방해한다는 이 유로 파괴한 것은 길드도 노동 조합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기관의 무익하 고 심지어 해로운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산업에 대해, 즉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갖고 있던 그 권력 을 정성들여 유지하였다.

무서운 테러리즘적 국민 공회 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 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기억에 따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당신들은 동맹을 구성하고, 당신들은 국가 안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문에 파업에서 항성 고를 내린다!”

이 답변에서 사람들은 보통 프랑스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본다. 그렇지만 그것에 다른, 더 깊은 뜻은 없는가? 그것은 국가와 모든 단체의 관 계에 대한, 즉 1793년 자코뱅주의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당신이 무엇인가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에 호소하라! 국가만이 백성 들의 불만을 만족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위 자衛를 위해 연합을 결 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국은 스스로를 유일하고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라 불렀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자·자코뱅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유의 잔혹한 논리를 갖고 국민 공회는 국가의 비밀스런 의미를 표현하지 않았단 말인가?

국민 공회의 답변에는 사회 단체 즉, 어떤 목적을 갖든 모든 사적인 조직 들과 국가의 모든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

러시아의 파업에 대해 말하자면, 파업은 지금도 국가에 대한 범죄로 생 각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빌헬름 황제는 최근에 광부 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청원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 을 위해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를 감수한다면, 그대들은 내 군대의 총검을 만 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프랑스에서도 거의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영국 에서도 그렇다. 비밀 결사, 배반자와 고용주에 대한 단검, 자동차에 설치 한 폭약 (바로 1860년에도), 베어링에 뿌린 모래 등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수 단으로, 100년간의 투쟁 후에야 비로소 영국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획

⁴ 역주 - 아르헨티나 남부에 위치한 파타고니아 초원지대의 원주민.

다른모든길드들이이문제에이해관계를갖고있기때문이었다. 그러한타협은이루어졌으며때로필요한경우그들은제 3 의심판자로이웃도시를초대하기도하였다.

오늘날유일한심판자는국가다. 인구수백의어떤자그마한도시의자잘한문제때문에왕의행정부서와의회사무실에는무수한서류와밀고장이쌓이게되었다. 예를들어영국의회는문자그대로, 지방에서올라온수천가지자잘한송사로넘치게되었다. 이서류들을분류하여읽고분석하여결정을내리기위해서, 말의편자, 옷감의염색, 청어절이기, 나무통제작등무수히많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 수도는수천명의관리들을(이들중대부분은돈에매수되었다.) 필요로하였다. 그래도일의양은늘어가기만하였다.

그러나이것이전부가아니었다. 곧국가는해외무역에손을대었다. 국가는해외무역이좋은돈벌이수단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 서둘러그것을장악하였다. 과거에도시들사이에운반된옷감의가격, 양모의청결도혹은청어운반통의용량때문에불협화음이생길경우, 두도시는이문제로서로문서를교환하였다. 논쟁이오래지속되는경우, 그들은제 3 의도시에도움을청하고제 3 의심판자가되어줄것을요청하거나,(이것은거의동시에이루어졌다.) 옷감의질과가격혹은통의용량에대한국제적협약을체결하기위해방직길드협회나통제작길드협회가소집되기도하였다. 이제국가가중앙에서, 파리혹은런던에서이모든다툼의해결을담당하게되었다. 관리들을수단으로국가는통의용량, 옷감의질, 씨줄과날줄로사용된실의수와굵기에대한규정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 국가는명령을통해모든수공업의세세한부분에개입하기시작하였다.

우리는그것의결과를알고있다. 18 세기에이통제의억압을받아산업은죽어갔다. 국가의보호아래서벤베누토첼리니 (Benvenuto Cellini) 의예술은어디로사라졌는가? 그것은죽고말았다! 우리가지금까지도놀라움을금치못하는석공과목공길드의건축은어떻게되었는가? 건축이죽었다는것에답하기위해서는국가지배시기의일그러진기념물들을보는것으로충분하다. 국가가가한타격으로부터지금까지도회복할수없을정도로건축은죽고말았다.

섬세한아마포, 네덜란드산양복지는어떻게되었는가? 거의전유럽에서철공들의손은귀하다고할수없는철을재료로우아한장식물들을만들어냈다. 그러나철을그토록숨쉬있게다루던철공들은어디로사라졌는가? 중세에정밀한기계로뉘른베르크의명성을창조했던선반공, 시계공과같은장인들은어디로갔는가? 제임스와트를생각해보라. 18 세기말에그는자신의증기기관을위해정밀한실린더를제작할사람을찾느라고 30 년을허비하였다. 그의세계적발명은 30 년동안조잡한모델로머물러있었다. 모델에따라기계를만들수있는장인이없었기때문이었다.

인의법⁵, 카빌족⁶, 몽골족, 아프리카인그리고다른민족의현대농촌공동체연합사이에지배적인관습과법들을연구한덕분에, 우리는동시대문명의출발점으로작용했던사회형태를완전하게복원할수있게되었다.

III

오늘날처럼농촌공동체는과거에도각각의마을에서토지를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개별가족들이루어졌다. 그들은토지를공동유산으로보았고, 가족의크기를고려하여필요와능력에따라서토지를분배하였다. 지금까지도동유럽, 인도, 자바그리고다른지역에서수억의사람들이그러한체제에살고있다. 국가가광대한공간의시베리아로이주할권리를부여했을때, 우리시대의러시아농민들은그러한방식으로자리를잡았다.

우선토지의경작은공동으로이루어졌다. 지금까지도많은지역에서이관습은적어도공동체토지의일정한부분을경작할때유지되고있다. 숲의벌채, 삼림의개간, 요새혹은도시의건설, 습격시도피처가되는담등모든것은국가의개입이성공적으로저항했던농촌공동체가있는곳에서, 수억의농민들이지금까지하고있는것처럼공동으로만들어졌다. 그러나요즘말로‘소비’는가족단위로이루어졌다. 각각의가족은자신의가축, 채소밭, 비축물자를소유했고, 따라서각가족은저축을하고, 축적된재산은유산으로물려줄수있었다. 모든사안에대해서공동체회의는최고의권력을가졌다. 지역의관습은법이었고, 남자와여자로구서오던모든가족대표들의공동집회는재판소, 특히민사와형사소송모두를위한유일한재판소였다. 모욕을당한공동체원은보통공동체회의가열리는장소에자신의칼을꽂기만하면되었다. 양편의증인들이선서한후모욕사실을확인하면, 공동체회의는관습에따라‘선고宣告’할의무가있었다.

⁵ 야만인의법이란개념은보통‘랑바르덴 (Langbarden : 긴수염)’족과바리아족들이만든, 지금까지살아남은법을의미한다. 우리의 『야로슬라프러시아법』 도이에속한다. 분량때문에나는‘비분화가족’에대해서술은제외하였다. 이것은매우넓게퍼져있는생활공동체로, 인도에많이발견되며, 중국가정생활의토대를이룬다. 우리의경우에는‘세메이스키예’, 즉자바이칼리아의구교도들이이에해당된다. 비분화가족은씨줄과날줄공동체사이에위치한다.

⁶ 역주 - 알제리북부지역에거주하는종족.

이러한사회발전단계를보여주는것을모두서술하기는어렵다. 개별 국가들이소수의이익을위해사용하는모든제도들, 비록소수의이익을위해왜곡되었지만우리의법에서발견되는모든법개념들, 모든재판의형식들은, 재판형식들이개인을보호하는한에는, 공동체관습에기초를두고 있다. 예를들어, 우리가배심원제도를도입함으로써큰진보를이루었다고생각할때, 사실우리는아만인들의제도로, 지배계급에유리하도록변형된제도로돌아가는것일뿐이다. 로마법은관습법위에세워진상부구조에지나지않는다.

이와동시에농촌공동체들의자발적이고폭넓은연합덕분에그들의민족적동일성의의식도발전되었다.

농촌공동체는토지의공동소유와빈번한공동경작을토대로하고있으며, 관습법에기초한주권, 재판권, 입법권을소유했고, 구성원들의사회적요구대부분을충족시켰다.

그러나모든소요가충족된것은아니었다. 충족되어야할것들은여전히남아있었다. 그러나당시의시대정신은다음과같았다. 즉인간은새로운소요가발생하면피에의존하지않고, 새롭게발생한소요를충족시키기위해 스스로일에착수하였으며, 이를위해다른사람들의동의에따라크고작은규모의, 많은혹은적은수의연합과단체를만들었다. 실제로그시대 의사회는 (농촌공동체내에서처럼농촌공동체밖에서, 즉공동체들의연합에서도) 문자그대로서원한형제단들, 상호부조를위한연합들, 가족공동체들의그물로 덮여있었다. 우리들은이런발전단계와이정신의발현을아만인들사이에서 - 이들연합은로마식으로, 더정확히말해비잔틴식으로수립된국가에아직굴복당하지않았다. - 발견할수있다. 예를들어, 카빌족은앞에서언급한기능을갖는농촌공동체를아주잘보존하고있다. 그러나인간에게는자신의활동영역을자기마을의좁은경계너머로확장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어떤사람들은세상속으로모험을찾아, 상인으로편력을시작하고, 또어떤이들은이러저러한기술과예술을배우기위해떠난다. 그렇게해서, 다양한상인들과기술자들은서로다른마을, 종족혹은공동체연합에속함에도불구하고‘형제단’속에서서로연합한다. 먼여행에서상호안전을위해, 서로에게비밀스런기술을전수하기위해그들에게연합은필수적이다. 그래서그들은연합한다. 그들은형제단에서약을하고, 말로만하는것이아니라, 소송에서도그것을실천에옮긴다. 이외에도, 나쁜일은누군에게나일어날수있다. 평소에는조용하고소심한사람도내일어떤싸움에말려들어예의법규와공동생활의규범이정한경계를침범하고, 누군가에게상처를입히거나다치게할수있다. 이경우다친사람이나모욕을당한사람에게아주큰보상을해야한다. 가해자는마을재판에서자신의입장을방어하고, 여섯, 열혹은열두명의서약한사람들의증언을통해진실을규명해야할것이다. 이것은형제단가입이중요한또한가지이유이다.

“도시와농촌에공동으로필요한것이있다면, 교회와국가에호소하라. 그러나직접공동으로연합하고, 힘으로해결을시도하는것은엄격하게금지된다.”¹⁶ 16세기부터이문구는전유럽에퍼지게된다. 14세기말에발표된영국왕에드워드 3세의명령에서, 우리는“모든조합, 형제단, 회의, 조직된단체, 목수와석공사이애이미정해지거나정해질예정인규약과서약은오늘부터효력을상실하며폐지될것이다.”는것을읽을수있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도시의반란과다른민중운동들이진압되고, 국가가완전한권력을장악하게되었을때, 국가는예외없이지금까지수공업자들과농민들을연결하던, 모든민중적기관에 (길드, 형제단등) 손을대기로결정하였다. 국가는직접기관들을해체하고, 그들의재산을몰수하였다.

이것은영국에서특히분명하게나타나는데, 이들기관의변화와정각각을기록한문서들이다량으로존재하기때문이다. 국가는길드와형제단을점점강하게압박하기시작하였다. 국가는그들의조합, 다음에는축제, 직공장들을제거하였다. 국가는직공장을대신하여자신의관리와재판관을임명하였다. 그후 15세기초헨리 7세때길드의재산을직접, 가차없이몰수하였다. ‘위대한’개신교왕의후계자인에드워드 6세는아버지가시작한일을완료하였다.

소롤드로저스 (Thorold Rogers) 가올바로말한것처럼, 이것은‘전혀정당하지않은’, 말그대로백주의강탈이었다. 소위‘과학적’경제학자들은바로이강탈을경제법칙의영향아래발생한길드의‘자연사’라고말한다.

실제로고유의상거래와자신만의재판소와자신만의군대와회계, 조직, 강력한서약을가진길드혹은조합을국가가허용할수있을까? 국가주의자들에게이것은‘국가속의국가’인것이다! 국가는이들을탄압해야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보헤미아모든곳에서국가는탄압했으며, 그것들중에서단지형식만을남겨두었다. 즉, 국가의경제적목적을위해유용한, 거대한행정기구의부분을이루는형식만이남게되었다.

길드와수공업자조합들은전에삶을구성하던모든것을상실하고왕의관리들에게종속되었으며, 지난 400년동안그랬던것처럼, 더이상산업발전의핵심이되지못하였다. 이런일이있은후에, 길드와조합이 18세기에는산업발전의부담으로, 장애로전락하고말았다는것이과연놀라운일인가? 국가가그것들을파괴했던것이다.

실제로국가는길드의삶을위해, 국가의개입을방어하기위해필요했던독립성과자주성을파괴하였다. 또한길드의모든부와재산을몰수하였을뿐만아니라, 국가는이와함께길드의모든경제활동기능까지도빼앗았다.

중세도시의내부에서이해가충돌하거나두길드가상호협약에이르지 못하고, 논쟁의해결을위해도시에서도움을청할곳이없는경우에, 양자는어떻게든합의를하거나어떤타협점을찾아야만했다. 왜냐하면도시의

잊지말기를바란다. 이것은제 3 공화국에서일어난것이다. 내가여기서말하는것은 5 내지 6 장의서류로정리되는구체제의‘야만적’방법들이아니다. 야만시대에국가의통제는유명무실했다고학자들이말하는것은이해할만하다.

그런데이것만이문제인가! 불필요한 2 만명의관리들과불필요한수억루블의예산은도대체무엇을의미하는가! ‘질서’와일사분란을사랑하는자들에게이것은정말별것이아니다.

이모든것위에놓인훨씬더나쁜것이있기때문이다. 그것은모든생명을파괴하는 원리다.

한마을의농부들에게는언제나수천가지공동의이해가있다. 예를들면, 농사, 이웃사이의이해, 지속적인교제들이있다. 그들은필연적으로온갖종류의목적을위해서로단결해야한다. 그러나국가는그러한단결을좋아하지않는다. 국가는그들에게학교, 성직자, 경찰과재판관을제공한다. 그들에게무엇이더필요하단말인가? 무엇인가더필요하게되면그들은수립된체계에따라교회와국가에호소해야한다.

그렇게 1883 년까지프랑스에서농민들이어떤것이든지조합을결성하는것은엄격하게금지되었다. 예를들면공동으로비료를구매하거나판을건조시키기위한조합의결성도금지되었다. 공화국은 1883-1886 년에야비로소농민들에게이권리를부여하기로결정하고, 온갖제한과예외규정으로누더기가된조합에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전에프랑스에서는 19 명이상의회원을갖는모든단체들은불법이었다.

이렇게국가로부터받은교육으로인해우리의지성은왜곡되었고, 그결과농업조합이그때이후로프랑스에서급속도로확장되었다는사실에대해서우리는기뻐한다. 그러나농민들이수백년에걸쳐상실하게된조합결성의권리가중세에획득한그들의자연스런재산이었으며, 이것은자유인이든농노든모든사람의, 논란의여지없는재산이었다는사실을생각하지못하고있다. 우리는노예의정신에오염되어, 이권리가마치‘민주주의의성과물들’중의하나라고상상하고있다.

국가에의해왜곡되고일그러진교육과우리국가의편견들이우리를이 정도로무지하게만든것이다!

IX

뿐만아니라, 인간에게는정치에대해논하거나심지어음모를꾸미고싶은욕구가, 이러저러한도덕적신념혹은관습을확산시키고싶은욕구가있다. 외부세계로부터자신을방어할필요도있다. 이웃종족들과동맹을체결하고, 폭넓은연합을형성하고, 종족사이에법의개념을확산시켜야한다. 이모든도덕적, 지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카빌족, 몽골족, 말레이족등은정부에부탁하지않는다. 그들은정부를갖고있지않다. 그들은관습법을따르며, 개인적동기에따라행동한다. 그들은어떤일도저지를준비가되어있는정부와교회에의해타락한사람들이아니다. 이때문에그들은직접연합한다. 그들은형제단을, 정치적종교적결사들, 수공업자조합을결성한다. 중세유럽인들은이것을길드라고불렀고, 카빌족은 소프라고부른다. 이 소프들은마을의경계에한정되지않는다. 그것들은먼사막과산도시들로확장된다. 실제로이들연합에서는형제정신이실천되었다. 자신의모든재산과생명을걸어야할지라도, 소프의구성원에대한도움을거절하는것은, 형제단의반역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즉그러한사람들은‘형제’살해자취급을당한다.

오늘날우리가카빌족, 몽골족, 말레이족등의사람들사이에서발견할수있는것은 5 세기에서 12 세기심지어 15 세기까지유럽에서야만족이라불리던사람들이살았던사회적삶의본질이기도하다. 길드, 조합, 유니베르시타스⁷ 등의이름으로아주다양한목적들을위한많은연합들이모든곳에존재했다. 상호방어를위하여, 가해자에대한상호징벌을위하여, 손해에대한보상금으로‘눈에는눈’의복수를대체하기위하여 (보상금을낸후에가해자는형제단이입이허용되었다), 수공업장에서공동작업을위하여, 역병이돌때상호부조를위하여, 영토를방어하기위하여, 증가하는외부세력에공동으로저항하기위하여, 교역을위하여, 선린관계를유지하기위하여, 이러저러한사상을전파하기위하여, 한마디로연합은황제와로마교황의계율에따라양육된현대유럽인들이국가에일반적으로요구하는모든것들을위해존재하였다. 사회적신분을상실한사람을제외한다면, 당시에자유인이든농노든자신의공동체외에어떤다른연합이나혹은길드에속하지않았던사람을찾기란매우어려울것이다. 스칸디나비아전설 (사가 saga) 은형제단과관련된사건들을노래한다. ‘형제단원들에대한무한한신뢰’가가장훌륭한서사시의주제를이루고있다. 반면에교회그리고태동중에있던왕권, 즉되살아난비잔틴혹은로마법의대변인들은저주와명령을사용하여형제단들을공격한다.(다행스럽게도이저주와명령은죽은황자로남아있다.)

형제자매의연합은인간의경제적, 정신적삶과같은매우다양한형태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모든곳에서나타났다. 이들연합을고려하지않는다면그시대의역사전체는의미를상실하고전혀이해할수없게된다.

⁷ 역주 - universitas, 라틴어로조합, 단체를의미한다.

두제도, 즉농촌공동체와자유형제단은로마, 기독교국은국가의영향을받지않던시기에큰발전을이루었다. 이발전을이해하기위해서는야만족이동시기의유럽과 10 혹은 11 세기유럽을비교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500 년혹은 600 년동안인간은성공적으로치녀림을정복하여그곳에정착하였다. 밭과올타리로돌러싸인요새화된도시의보호를받는마을들이나라를덮었고, 마을들사이에는숲과소택지를지나는길이나있었다. 이들마을에서우리는다양한수공업의태동을, 그리고내적, 외적평화의유지를위해만들어져완벽한그물망을형성한제도들을발견한다. 전시대와달리, 이미이시기에는살인혹은마을주민에대한상해에대하여가해자나가족중의하나를죽이거나그에상응하는상해를입히는방법으로복수하지않았다. 왕의친위대였던대귀족과귀족들은과거의규범을유지하였으나 (이는그들사이의전쟁이끊이지않았던이유다.), 농민들사이에는가해행위에따른보상금을지불하는것이관습이되었고, 그후에평화가회복되고, 언제나그런것은아니지만대부분의경우에가해자는피해자가족의일원으로받아들여진다.

모든다툼과분쟁에는중재재판이있었다. 중재재판은깊이뿌리내린제도로서일상의습관이되었다. 이와달리주교와제후들은모든분쟁을자신들이혹은자신들의관리들이다룰것을요구하였다. 이렇게하여그들은공동체가사회적안정을파괴한사람에게부과하는벌금을자신들이징수하기를원했다.

마침내수백개의마을들은강력한연합을결성한다. 이것은미래유럽민족의맹아로서, 서약을통해내적인평화를유지할것을의무화하고, 자신들이점유한토지를공동의유산으로생각하고, 상호방위를위한계약을체결한다. 그러한연합들은몽골족, 터키-핀족, 말레이족들사이에지금도발견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평선위에는검은점들이조금씩나타나기시작한다. 이들연합들과더불어다른연합들, 지배하는소수의연합이발생한다. 후자의연합은자유로운인간들을농노로, 신민으로바꾸기를시도한다. 로마는멸망했으나, 로마의신화는다시살아났다. 다른한편, 동방의강력한국가를꿈꾸는‘기독교’는태동하던시민그리고군사권력을지지한다.

자신들이인간을지배해야한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 일반적으로지배자는인간을피에꿍주린짐승으로묘사한다. 그러나결코그렇지않다. 반대로인간은언제나안정과평화를사랑한다. 때로인간은싸움을거부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본능적으로피를좋아하지않으며, 언제나전쟁상태보다는목축과땅의경작을더좋아한다. 야만족의대이동이약화되고, 떠돌이무리가어느정도땅을차지하고정착하자, 새로운유랑인과적을방어하는수고는한사람에게위임된다. 위임받은사람은전쟁에익숙한모험

다. 농민들은자신들의공동체토지중에서보잘것없는부분만을소유하게되고말았다! 바로이것이지주, 성직자, 군인, 재판관들사이의상호보장연합이, 즉국가가농민에게행한것이다. 국가는농민에게서빈곤과경제적노예상태로부터떠어나올마지막수단을빼앗고말았다.

이제다음과같이물어볼수있다. 그런식으로공동체토지의강탈을조직하고은폐하면서, 국가가지방삶의조직인공동체의존재를허용할수있었을까?

명백히그렇지않다.

자신의환경속에서시민들이국가의몇몇의무를갖는조합을조직하도록허용한다면, 그것의국가의원칙과모순된다. 국가는매개하는단체없이, 모든신민의직접적이며개인적인복종을요구한다. 국가는노예상태에서의평등을요구한다. 국가는‘국가속의국가’를건디지못한다.

때문에 16 세기에, 국가가수립되기시작하자마자, 국가는도시의시민들과농촌의농민들사이의관계를끊는작업에착수하였다. 국가가독립은절대아니지만가끔도시관청의자치를미약하나마허용했다면, 이것은오직국가의재정과관련된목적을위해, 국가의일반부채를대폭줄이기위해서였다. 혹은민중을희생시켜도시재산가들에게부자가될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였다. 이것은최근까지영국에서일어났으며, 지금도영국의제도와관습에반영되고있다. 즉최근까지소수의부유한상인들이모든도시경제를장악하고있다.

이것은당연하다. 지방의삶은관습법으로부터발전한반면, 로마의법은권력의중앙집권화로이어지기때문이다. 둘의공존은불가능하다. 둘중하나는다사라져야한다.

예를들어, 이것은왜프랑스통치하의알제리에서, 카빌의 **젼마** 혹은 농촌공동체가토지에대한소송을진행할때면, 공동체회원들각자가개별적으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가에대한이유다. 왜냐하면법정은젼마의집단적인하나의소송보다는, 오히려 50 혹은 200 명의개별적인소송을다루기를원하기때문이다. 나폴레옹법전이라알려진국민공회의자코뱅법령은관습법을인정하지않는다. 즉이법령을위해존재하는것은로마법혹은나아가비잔틴법뿐이기때문이다.

바로이것이프랑스어던가큰길가의나무가바람에쓰러졌을때혹은어떤공동체의한작은지역을스스로수리하는대신농민이 2 혹은 3 프랑을주고석공에게일을맡기길원할때, 그가책상에앉아내무부와국가출납국의 15 명이아되는관리에게편지를써야하는이유이다. 이거대한잡일은 50 장이상의서류를교환해야한다. 그리고그때서야나무를팔수있고, 농부는공동체금고에 2-3 프랑을낼수있는허가를취득할수있다.

이것을믿지못하겠다는말인가? 『이코노미스트지』에실린트리코쉬의기사를보라. 그는이 50 장에달하는서류의자세한목록을모두소개하였다.

었다. 국가는의회를손쉽게자신들의관리로채울수있었다. 이러한상황은농촌공동체가재건되는 1801 년까지지속되었다. 그러나대신에 36,000 개의프랑스공동체에서장과조합장을임명할권한을정부스스로가 갖는법을만들었다! 이우매한것은 1830 년혁명까지계속되었고, 이후에야 1784 년의법이부활했다. 두대책사이의기간동안공동체토지는 1813 년국가에의해몰수당했고, 그후 3 년동안약탈을당했다. 남은토지들은 1816 년에야반환되었다.

그러나이것으로끝나지않았다. 모든새로운정부는지지를보여준사람들에대한포상비용의재원으로공동체토지를생각했다.

1830 년이후 3 회에걸쳐, 처음은 1837 년, 마지막은나폴레옹 3 세가공동체의삼림과목장을농가별로분배할것을 명령하는법안이 통과되었다. 세번모두정부는농민들의저항을받고서야이법안을취소하였다. 그럼에도나폴레옹 3 세는이것을교묘히이용하여, 자신의충신들을위해몇몇거대한장원을은밀하게탈취하였다.

이것이바로프랑스에서공동체토지소유가'자연스러운죽음'에이르게만든사실과'경제법칙'이었다. 그렇다면전쟁터에서수십만군인의죽음도역시'자연스러운죽음'이란말인가?

프랑스에서일어난것은벨기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일어났다. 간단히말해, 슬라브국가들을제외한모든유럽에서일어났다. 무엇보다이상한것은모든서유럽국가에서공동체약탈의시기가일치한다는것이다. 방법이달랐다. 영국에서는일반적인수단을도입하지않고, 수천개의개별적인인클로저법령²²을제정하는방식을택했다. 이법령에따라귀족과자본가로그구성된의회는개별적인사안마다토지의몰수를승인함으로써, 지주들이둘러싼토지를지주들이소유하는권한을부여하였다. 영국에서는지금까지도고랑의흔적들이발견된다. 이고랑들은공동체토지를구역으로, 어느정도는가족단위로구분하기위해서사용되었다. 우리는마셜 (A.Marshall) 의저서에서 19 세기초까지존재했던이런종류의토지소유에대한분명한묘사들을찾아볼수있다. 그럼에도영국에는농노제도를제외하면농촌공동체가절대로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학자들은 (뤼스텔드쿨랑지 [Fustel de Coulanges] 의충실한제자인 시봄 [F.Seebohm] 과같은학자) 지금도존재한다.

그러한방법을우리는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볼수있다. 공동체소유였던토지의사유화는이렇게 19 세기중반즈음에완성된

²² 역주 - 이것은소위영국의인클로저 (enclosure) 운동과관련된법령으로, 공동이용이가능한토지에담이나울타리등의경계선을쳐서남의이용을막고사유지로할수있게하였다. 이결과농민들은지주에게땅을빼앗기고, 농업노동자로전락하고후에공업노동자가되었다. 모직물공업이발달함에따라강제로농토를목장으로전환시켜양모의생산을증진시키려했던이정책은농촌을몰락시켰고, 농민을값싼노동자로전락시켜자본주의발전을촉진시켰다.

가들중에서혹은강도들중에서크지않은친위대를직접구성하고, 나머지사람들은동물사육이나토지경작에종사한다.

그후'보호자'는부를축적하기시작한다. 그는가난한친위대원에게말과무기를주고 (당시이런것들은매우비쌌다.) 그렇게해서친위대원을부유하게만든다. 그는권력의첫번째맹아를키운다. 다른한편대부분의사람들은법으로가능했던설화를잊기시작한다. 과거에있었던결정들을기억하고있는노인들이가끔결정에대해노래하거나공동체의큰축제때사람들에게영웅담을이야기한다. 그때, 부모로부터아들에게전수된기술처럼, 이시와노래를기억하는가족들이즉'법'을순수형태로보존하는가족들이조금씩특화된다. 마을사람들은복잡한분규와분쟁의해결을이들에게부탁한다. 특히두마을혹은두마을연합이자신들이선택한중재재판의결정을인정하지않을때그러하다.

이들가족속에서제후권력혹은왕권이싹튼다. 그시대의제도를연구하면할수록무기의힘보다관습법에대한지식이권력의획득을더쉽게만든다고확신할수있을것이다. 사람들은법법자를'징벌'하려는욕망때문에, 무기에직접복종하기보다는오히려법에복종하게된다.

이런방식으로최초의'권력연합'이창조된다. 이것은공동지배를서로보장하기위한최초의공동체, 즉마을공동체에적대적인세력으로서재판관들과군지휘관들사이의연합이다. 이두관직은한인물로결합된다. 그인물은재판선고를실행에옮기기위하여무장한군인들을거느리며, 자신의요새에서군사력을강화한다. 또한그시대의부 (예를들면빵, 가축, 무기) 를자기가족사이에축적하고보존하기시작하여, 점차이웃농민들에대한지배를주장한다. 그시대의지식인들 (주술사, 점성가, 성직자) 은그를지지하고자신들문의권력을얻는다. 즉그들은마술사의위협적인능력에갈의힘을결합함으로써자신의권력을확고하게만든다.

이가장중요한주제에대해상술하기위해서, 왜점차자유인들이세속혹은종교지배자를위해노동해야하는농노로전락하게되었는가를, 시골과도시에대한지배가어떤방식으로서서히만들어졌는가를, 이증가하는지배에대항하여어떻게농노들이연합하고봉기했는가를, 어떻게이들이견고한성벽앞에서그리고머리부터발끝까지중무장한군인들과의싸움에서패배하였는가를이야기하기위해서는당연히한권의책이아니라여러권의책이필요하다.

11 세기경유럽에오늘날우리가동방의역사에서만날수있는것들과비슷한신정국가 (신정정치) 혹은아프리카에서볼수있는것과유사한야만적왕조들이형성되었다는것을언급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물론이런일은하루아침에일어날수없었다. 어쨌든이러한작은전제왕권과신정정치의속성은존재하고있었고, 이제더발전하기만하면되었다.

'야만족'정신은스칸디나비아족, 작센족,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이 7-8 세기동안형제단과길드의자유로운협약을통해빈곤을극복

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이정신은다행스럽게도여전히시골, 도시, 촌락에살아있었다. 사실야만족은예속되어, 군주를위해일하였다. 그러나자유로운자기주도와자유로운협약의정신은아직소멸되지않았다. 그들의연합들은불멸할것처럼보였으며, 십자군전쟁은서유럽에서연합의각성과발전에게여하였다.

그리고 12 세기에유럽전역에서도시공동체들은혼연일체가되어봉기를시작한다. 이봉기는오래전부터연합의정신에의해준비되고, 수공업길드와농촌공동체의연합이란토대위에서발전되었다.

대부분의공식역사가이봉기를축소하고있지만, 이것은유럽을치명적인위험으로부터구출하였다. 이봉기는신정군주국과전제군주국의발전을저지하였던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론의문명이그랬던것처럼, 신정군주국과전제군주국에서우리의문명은화려하고공허한위용을뿜내다가수세기후에는사라져버릴수도있었다. 새로운삼의한장, 즉자유로운도시공동체들의장은이혁명에의해서시작되었다.

IV

현대역사가들은로마법의정신으로훈육되고, 로마를모든제도의원천으로보는것에익숙하다. 그들은 12 세기공산운동의정신을이해하기어렵다. 이것은놀라운것은아니다. 개인의권리를과감하게인정하는것, 인간들을마을로, 도시로, 연합으로자유롭게결속시킴으로서형성된공동체를과감하게인정하는것은단일화와중앙집권화를결정적으로부정하는행위였다. 단일화와중앙집권화는고대로마의특징이었으며, 이들은현대공식학문의역사적표상들에스며들어있다.

12 세기의봉기를어떤탁월한개인이나, 어떤중앙집권적제도의공으로돌려서는안된다. 봉기는친족관계와농촌공동체와같이인류의성장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것은어떤한지역에혹은한지방에속한것이아니라, 상당한수준의인류발전단계에속한다.

여기에공식학문이이운동의의미를이해할수없는이유가있다. 19 세기초프랑스에서이시기를실제로이해하고기록한티에리(J.Thierry)와시스몽디(J.Sismondi) 의뒤를잇는학자가오늘날까지없기때문이다. 지금은단지뤼세르(A.Luchaire) 만이, 그것도아주조심스럽게, 메로

Babeau) 에게서찾아볼수있다. 그러나튀르고(A.Turgot) 는공동체의민회가‘지나치게소란스럽다.’고생각하여, 자신이통치하는지역에서민회를폐지해버렸다. 그대신에그는재산을소유한주민중에서선발하여회의를구성하였다. 1787 년, 혁명전야에국가이방법을전프랑스에확대하였다. 농촌공동체는파괴되었고, 공동체업무관리는부유한자본가와농민들로구성된소수조합의수중으로넘어갔다. 제정의회는 1789 년 12 월서둘러법을통과시켰고, 그이후귀족의자리를차지한자본가들은공동체토지중나머지부분을강탈하기시작했다. 일련의농민반란이있은후에야 1792 년국민공회는¹⁹ 동프랑스에서봉기한농민들이이룩한것을승인하였다. 즉국민공회는농민들에게공동체의토지를돌려주라고명령하였다. 그러나이것은농민들이반란으로땅을되찾았을때에만, 농민들이스스로이일을실현한곳에서만가능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모든혁명적법안들의운명은그러했다. 즉그것이완성된사실이되었을때에만, 혁명적법안들은존재할수있다.

그럼에도국민공회는이법안에자본가의독을주입시킬기회를놓치지않았다. 법안에따르면, 귀족으로부터몰수한토지는‘능동적인시민’에게, 즉농촌자본가들에게공평하게분배되어야했다. 이렇게간단하게국민공회는‘수동적인시민’, 즉누구보다공동체토지의분배가절신했던가난한농민대중들의토지소유권을박탈했다. 다행히이에대한답으로농민들은 1793 년다시폭동을일으켰다. 그때서야국민공회는모든농민들이이에토지를분배한다는새로운법안을만들었다. 그러나이명령은결코실행에 옮겨지지않았으며공동체토지의새로운장악을위한구실로사용되었다.

이들권력자들이표현하는것처럼이모든대책들은공동체들을‘자연사’시키기위해충분한것처럼보였다. 그러나공동체들의존재는계속되었다. 1794 년 8 월 24 일당시권력을갖고있던반동세력은공동체에새로운타격을주었다. 국가는모든공동체토지를몰수하여그것으로국가부채를충당하기위한예비기금을만들었다. 무엇보다도토지를농민들에게, 자코뱅당원의치형으로즉테르미도르의반동²⁰으로끝난자본주의혁명의경쟁자들에게경매로팔기시작했다.

다행히다섯번째해‘프레리알’²¹2 일이법은 3 년만에폐기되었다. 그러나동시에공동체들도파괴되었고, 이를대신하여‘지방의회’가설립되

¹⁹ 역주 - convention nationale. 프랑스제 1 공화국의최고입법·행정기관 (1792-1795).

²⁰ 역주 - 프랑스혁명정부를무너뜨린테르미도르 (혁명력의 11 월) 9 일의쿠데타사건 (1794.07.27.).

²¹ 역주 - Prarial(프레리알: 목장의달, 풀의달). 1793-1805 년사이에사용되었던프랑스혁명력의 9 번째달로, 5 월 20/21-6 월 18/19 일에해당한다. 본문의“다섯번째해프레리알 2 일”은 1797 년 5 월 21/22 일이다.

도시의독립을파괴하는것, 상인길드와수공업길드를약탈하는것, 도시의대외무역을장악하고파괴하는것, 길드의내부행정권을장악하고국내상업과수공업을모든세제한사항에이르기까지관리의무리에게종속시키는것, 이렇게하여산업과예술프로트리는것, 지역예비군을파괴하는것, 강자에게유리한세금으로약자들을억압하고전쟁으로국가를유린하는것. 16-17 세기에대동하던국가가한역할은바로그런것들이었다.

같은일이농촌의농민들사이에도일어났다. 충분히강해졌다고느끼자즉시국가는서둘러농촌공동체를파괴하였고, 국가의전환에완전히노출된농민들을유린하였으며, 공동체토지를약탈하였다.

국가로부터급료를받는역사가, 정치가, 경제학자들은농업공동체가농업발전을방해하는낡은토지소유형식이며, 농업공동체는자연스런경제발전의영향을받아사라질운명에처한것이라고언제나우리를가르쳤다. 정치가와자본주의경제가들은지금까지도계속해서이렇게말하고있으며, 심지어학교에서배운허무맹랑한이야기를반복하는혁명가와사회주의자들도있다. 이들은스스로를‘과학적’사회주의자라고부르기도한다.

그러나이것은학문에서만만날수있는몹시불쾌한거짓일뿐이다. 진실알기원하는사람이면누구에게나명백하게증명할수있는많은자료가역사에축적되어있다. 프랑스에대해서는달로즈 (V.Dalloz) 를읽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무엇보다진실은국가가농촌공동체의모든독립성과사법권, 입법권그리고행정권을빼앗았다는것이다. 다음에토지는국가의비호를받는부자들에게의해강탈당했고, 혹은국가에몰수당하였다.

이런강도행위는프랑스에서 16 세기에시작되었고, 17 세기에도오랫동안계속되었다. 1659 년에도여전히국가는공동체를자신의보호령으로만들었다. 이때부터공동체토지의강탈이시작되었다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루이 14 세의명령서를읽는것만으로충분하다. “사람들은몇대토지를점유하였다¹⁸ ...그들은강탈을정당화하기위해... 토지를나누어가졌고, 부채를날조하여공동체에갚게만들었다.”라고왕은명령서에서말했다. 그리고 2 년후, 그는모든수입을몰수하여자기것으로만들었다. 이것이바로과학의언어로‘자연사’라고하는것이다.

다음한세기동안적어도전체공동체토지의절반이국가의비호를받는귀족과성직자들의소유가되었다. 그럼에도공동체는 1784 년까지존속하였다. 공동체구성원들은여전히느릅나무아래어딘가에서집회를계속하였고, 토지를분배했으며, 세금을정하였다. 이에대한기록은바로 (A.

¹⁸ 역주 - 루이 14 세는농촌공동체가토지를공동으로소유하고경작한것을“몇대토지를점유하였다.”고비난하고있으며, 이러한비난을구실로농촌공동체의수입을강탈했다.

빙거왕조와코뮌시대에대한위대한역사가티에리가제시한길을따르고있다. 이런이유로독일에서도이시기에대한연구와그정신에대한모호한이해는지금에야비로소향상되고있다. 영국에서이세기에대한진실한평가는역사가들에게서가아니라, 시인인윌리엄모리스 (W.Morris) 에게서만찾아볼수있다. 예외는그린 (J.Green) 인데, 그는생애마지막에서야비로소그것을이해하기시작하였다. 알려진바와같이로마법의영향이크지않은러시아에서는벨라예프, 코스토마로프, 세르게예비치와몇몇다른사람들이민회시대의정신을탁월하게이해하였다.

중세의공동체는한편으로농촌공동체로, 다른한편으로는지역적경제를초월하여존재했던많은조합, 길드들로구성되었다. 도시의성벽과망루의보호아래이공동체는이두종류의조합들이결합함으로써형성되었다.

많은지역에서공동체는완만한성장의결과로서나타났다. 그것은서유럽의모든지역에서처럼다른지역에서도혁명의결과였다. 이러저러한지역의거주자들이자신들의성벽안에서충분히안전하다고생각할때, 그들은‘공동서약’을행한다. 구성원들은모욕과싸움혹은상해와관련된과거의일들을잊기로맹세하고, 앞으로분쟁시에자신들이선정한길드혹은도시조합외에는어떤다른관에게도의뢰하지않겠다고맹세하였다.

이러한습관은모든수공업조합에서, 모든공제조합에서, 모든가부장적공동체에서오래전부터존재하였다. 주교혹은제후들이농촌공동체에자신의재판기관을도입하고강제로그것을관철시키기전까지, 이것은농촌공동체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제도시의구성원이된모든자유농민마을들과교구들은도시에만들어진행제단과길드들과함께‘우정 (amilas)’을수립하고, 자신들의재판관을선출하여, 이집단들사이에생긴영원한연합에충성하기로맹세하였다.

즉시현장이작성되고승인을받게되었다. 때로현장의모델을구하기위하여이웃도시로사람들을파견하기도하였다.(지금우리는수백종류의현장들을알고있다.) 이렇게하여새공동체가창조되었다. 그이전까지주교혹은제후들은공동체구성원들사이에서재판을하거나, 종종그들의지배자노릇을하였다. 그러나그들은이제완성되고있는사실을인정하거나무기를들고이젊은연합에대항하여싸워야했다. 다른제후들을지배하기위해애쓰지만, 재산은없었던왕혹은제후가돈을대가로현장을‘수여하는’경우도드물지않았다. 그는공동체에자신의재판관을지명하기를거부하는대신우월한위치를차지하였으며, 여러도시의수호자로서다른봉건영주들앞에서큰중요성을얻었다. 그러나이것은절대일반적규칙은아니었다. 즉수백개의자유도시들은자신들의성벽과창의보호아래고유의지외에는어떤다른법도없이살았다.

한세기가지나는동안에운동은모방을통해일사분란하게전유럽에확대되었다. 운동은스코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로 퍼졌다. 지금 우리가 현장과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혹은 스페인의 자유도시들의 내적인 구조를 비교하면, 동일한 종류의 사회계약의 보호막 아래서 성장한 공화국들과 현장들의 유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법앞에서 노예가 되는 것 외에, 제도의 단일성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로마의 승배자들과 해겔주의자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대서양에서 불가까지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탈리아까지 전 유럽은 비슷한 자유도시들도 뒤덮었다. 그들 중에서 플로렌스, 베네치아 혹은 뉘른베르크와 같은 일부 도시들은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가 되었고, 다른 도시들은 수백가구로 구성된 키작은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도시들도 보다 더 번창하는 다른 도시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생명과 힘으로 충만한 도시의 발전은 물론 모든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리적 상황, 대외 무역 거래의 특징,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때문에 각각의 공동체는 고유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에는 동일한 원리가 놓여 있었다. 러시아의 프스코프처럼 네덜란드의 브뤼지도, 삼백여 명의 거주자가 사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처럼 여러 섬들을 가진 번성한 베네치아에서도, 북프랑스 혹은 폴란드의 도시처럼 아름다운 플로렌시아에서도 모두 우정 (amitas), 즉 농촌 공동체와 연합된 길드 연맹을 구성하였다. 그들의 내적인 조직의 전체적 특징은 어디서나 동일했다.

도시 인구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벽은 확장되었다. 더 높은 새 망루들이 추가되었고, 각각의 망루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구역과 길드가 자리잡았으며, 망루는 고유의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도시는 보통 몇 개의 구역 혹은 구간으로 나뉘었다. 넷, 다섯 혹은 여섯 개의 구역 혹은 구간은 도시 중심의 내성 內城으로부터 성벽을 향해 펼쳐진 길들로 구분되었다. 이 구역과 구간들에 각각의 독특한 수공업 혹은 작업장들이 자리를 잡았다. 즉 새로운 수공업 혹은 새로운 작업장들은 마을을 형성하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와 도시 성벽의 경계속으로 들어왔다.

각각의 거리와 교구는 옛 농촌 공동체에 해당하는 토지 단위였다. 이들은 자신만의 거리의 장 혹은 교구장, 거리 민회 民會, 법정, 선출된 성직자, 수비대, 깃발과 인장 (국가의 독립성의 상징) 을 갖는다. 다른 거리들과 그리고 교구들과 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독립성을 유지한다.⁸

거리 혹은 교구와 주로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했던 직업 단위는 길드, 즉 수공업 조합이었다. 이 조합도 똑같이 자신들이 성직자, 거리, 민회, 재판소를 보유한다. 조합은 고유의 금융 기관, 군대, 깃발을 갖는다. 조합은 고유의 인장을 소유하고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다. 전쟁이 발생할 때, 길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길드의 수비대는 다른 길드의 수비대와 나란히 출정한다. 이에 길드의 깃발은 도시의 큰 깃발과 나란히 높이 게양된다.

대신에 국가는 복종과 규율을 수립해야 했다. 이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것이 없다면 국가는 국가 이기를 중단하고 연방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학살과 전쟁의 세기인 16 세기는 삶과 죽음의 투쟁으로, 태동하던 국가가 도시들과 그 연방들에게 선포한 전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다. 도시들은 포위되어 점령되고 약탈당했다. 주민들은 학살당하고, 유형에 처해졌다. 국가는 모든 전선에서 승리했으며, 이 승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 세기에 유럽은 부유한 도시들로 덮여 있었다. 도시의 수공업자, 석공, 방직공, 조각가들은 예술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대학은 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그들의 무역상들은 대륙을 횡단하였고, 배는 바다와 강을 종횡으로 항해했다.

2 백년이지나는 동안 이들 중에 무엇이 남았는가? 5 만 ~ 10 만의 주민을 가진 도시들은 즉, 오늘날 가장 잘 설비된 수도와 비교할 때 각각의 주민당 더 많은 학교와 병원 침대가 있었던 플로렌스 같은 도시들은 보잘 것 없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쫓겨났다. 도시의 부는 국가 혹은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 산업은 관리들의 조악한 지원 아래 곤경에 빠지고, 상업은 몰락하였다. 도시들을 이어주던 도로로는 17 세기에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국가는 모든 곳에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전쟁은 유럽을 황폐화시켰으며, 국가가 직접 파괴하지 못했던 도시를 파괴했다.

그렇다면, 농촌은 국가적 중앙 집권화로 부터 이득을 보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스코틀랜드, 토스카나, 독일 농촌의 삶에 대해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과 1648 년 영국, 태양왕 루이 14 세 시기의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농촌의 빈곤, 한마디로 국가가 지배한 백 년 후에 발생한 모든 농촌의 빈곤에 대한 서술을 비교해 보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정하고 지적하는 빈곤은 도처에 있었다. 농노제가 폐지된 곳에서 그것은 여러 다른 형태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곳에서 그것은 국가의 비호 아래 고대 노예제의 모든 특징을 갖는 잔혹한 제도로, 심지어 이보다 더 나쁜 제도로 변화되었다.

국가의 주된 관심은 우선 자유 도시를 다음에는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농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끊고, 약탈한 토지를 부자에게 넘겨주고, 농민들을 관리, 성직자, 지주들의 권력에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도대체 국가로부터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VIII

⁸ 러시아와 관련된 사항은 벨라예프의 『러시아 역사 이야기』 를 보라.

로이주하였다. 이곳에서그들은지금까지도공동체를이루며살고있으며, 국가를위하여뎌봉사도거부하고있다.

이때이후로국가의존재는보장받게되었다. 법률가, 성직자, 지주그리고군인은왕권주위에서우호적인연맹을결성하고, 이제다시파괴적인작업을계속할수있게되었다.

이시기에대하여역사가들은얼마나많은거짓을축적해왔는가! 학교에서우리모두는, 국가가중세사회의폐허위에민족적연합을창조하여인류를위해많은공헌을하였으며, 그러한연합은도시들의경쟁때문에전에는실현되기어려웠다고배웠다. 우리모두는학창시절에그렇게배웠고, 나이가들어서도거의모두이것을믿었다.

그러나이제우리는, 중세도시들은모든경쟁에도불구하고 400 년동안이들연합을자발적협약에기초한연방으로결속하려고했으며, 그들은이점에서완전하게성공했다는것을알고있다.

예를들어롬바르디아 (Lombardia) 동맹은북이탈리아의모든도시들을포괄하였고, 제네바와베네치아에서고유의재정을소유했다. 토스카나 (Toscana) 동맹, 60 개의도시가참여한라인 (Rhein) 동맹과같은다른연방들, 베스트팔렌, 보헤미아, 세르비아, 폴란드, 러시아도시들의연방이전유럽을덮었다. 상업을위한한자 (Hansa) 동맹은당시에스칸디나비아, 북독일, 폴란드, 발틱해주변의러시아도시들을포함하였다. 자발적연합의형성을위해필요한모든요소들그리고심지어그것들의실천적실현도이곳에존재했다.

지금까지도그런연합의살아있는예들을찾아볼수있다. 스위스를보자. 그곳에서의연합은무엇보다도프랑스란 (Lan) 지방에있는것과유사한농촌공동체들 (칸톤¹⁷) 사이에생겼다. 왜냐하면도시가폭넓은대외적인상거래를했던다른나라들에서그랬던것처럼, 스위스에서도시들은농촌과완전히분리된적이없었기때문이다. 16 세기에스위스의도시들은농촌이붕기할때도움을주었다. 이때문에연합은도시들과농촌을하나의연방으로통일하여지금까지성공적으로존속시켰다.

그러나본질상국가는자유연합을용인할수없다. 자유연합은국가의입법자들을경악하게만든다. '국가안의국가!' 국가는스스로존재하는자발적인연합을국가안에두는것을용인하려하지않는다. 국가는 **신민臣民**만을인정한다. 국가와그의지주인교회만이개별적인개인들사이의연결고리가되는절대적권리를갖게되었다. 분명한것은, 국가는시민들사이의직접적관계에기초한도시를필연적으로파괴하려노력한다는것이다. 국가는 **필수적으로** 그러한도시에서모든내적관계를파괴하고, 도시자체를파괴하며, 도시들사이의모든관계를파괴해야했다. 연방의원리

도시는이들구역, 거리, 교구, 그리고길드들의연합이된다. 도시는중앙민회에모든주민들의전체회의, 자신의중앙시청, 선발된재판관들과고유의깃발을갖고, 이것발주위에모든길드와거리의깃발들이집결한다. 도시는다른도시들과의협상에임하고, 전권을갖는단위로서필요한누구와도동맹을맺고, 원하는누구와도민족적인그리고국제적인연합을체결한다. 예를들어, 도버 (Dover) 시근처에위치한영국의쌍크포츠⁹는해협 반대쪽에있는프랑스와네덜란드의항구도시들과연합을형성한다. 바로이시기에자발적인동의에따라협약의망이만들어지고, 이것은훗날국제법이란이름으로알려지게되었다. 모든도시의공통의건이이협약들을보호하였으며, 오늘날국제법이준수되는것보다더잘준수되었다.

어떤복잡한분규를해결할수없는경우에, 도시는자주이웃도시의도움을받았다. 그시대의정신, 즉권력보다는오히려제 3 자에게도움을청하려는노력은다투는두공동체가제 3 자에게의뢰하는행위속에지속적으로나타났다.

우리는수공업조합들에서도그러한것을발견할수있다. 그들은도시와는완전히독립적으로상거래를행하고, 어떤민족적구분에구애받지않고협약의체결에임한다. 그리고우리가지금국제노동자회의에대해서자부심을갖지만, 무지한우리는수공업자와심지어도제들의국제적대회가 15 세기에소집되었다는사실을완전히잊고있다.

외부의공격이있을때, 중세도시는스스로방어하거나, 매년한두사람을자체군대의지휘관으로임명하여주변봉건영주들과혹독한전쟁을수행한다. 혹은도시는제후나공작을특별 '군사지휘관'으로고용한다. 그는 1 년단위로고용되며, 도시는필요한경우그를해임할권리를갖는다. 친위대를유지하기위해도시는법정징수금과벌금을받아모은돈을그에게지불한다. 그러나그는도시의일에개입할권리를갖지않는다. 때로도시가너무약해서주변의봉건영주들로부터완전히자유롭지못할때, 도시는, 어느정도고정적인 '군사지휘관'에게하듯이, 주교, 제후혹은다른가문에 - 이탈리아의구엘피 (Guelfi) 혹은기벨리니 (Ghibellini), 러시아의류릭가문, 라트비아의올게르드가문등 - 도움을청한다. 이때도시는주교혹은제후의권력이성안에살고있는친위대를벗어나지못하게철저히감시한다. 심지어주교, 제후는허가없이도시로들어가는것이금지된다. 알려진것처럼, 지금까지도영국왕은시장의허가없이런던으로들어갈수없다.

중세도시의경제적인면에대해자세히언급하고싶은생각이간절하다. 그러나그것은너무나다양해서신뢰할만한개념을전달하려면말이너

¹⁷ 역주 - Kanton. 스위스의행정단위.

⁹ 역주 - Cinque Ports. 영국남해안의특별항구. 원래는 5 개항이었으나후에 2 개항이추가됨.

무길어질것같다. 국내의상거래는개별수공업자가아니라언제나길드에 의해서이루어졌고, 가격은상호협약에의해서결정되었음을지적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처음에대외무역은 전적으로도시들에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예를들면, 대노브고로드, 제네바등이대외무역을이끌었다. 나중에서야상인길드가독점적으로무역을했고, 더후에는개인들이이끌었다. 일요일과수요일의점심식사후에는 (이시간은목욕을위한것이였다.) 누구도일하지않았다. 도시는밀, 석탄등과같은필수품의구매를담당하였고, 자신만의가격으로자기주민들에게그것을공급하였다. 스위스에서도시는 19 세기중반까지곡물구매권한을가졌다.

우리가수집할수있는많은역사적인자료들을근거로말할수있는것은, 이시기를전후한어떤시대에도중세도시들이누렸던, 모든사람에게보장된그러한행복을일구는경험한적이없다는것이다. 중세도시는오늘날의빈곤, 미래에대한불확신, 과도한노동을전혀알지못했다.

V

단순한것에서부터복잡한것을조직하는자유, 생산과국내상거래는수공업자조합들이담당하고대외무역과주요생필품의구매는도시스스로가행하던관습, 이러한것들덕분에중세도시들은처음 200 년동안모든거주자를위한행복, 부富, 높은발전, 교육의중심이되였다.

영국의로저스 (Thorold Rogers) 와많은독일연구가들은소비재가격대비임금의가치를파악할수있는자료들을조사하였다. 이들의조사에따르면당시의수공업자들과심지어단순일급노동자들의노동임금은우리시대가장숙련된노동자들의노동임금보다높았다. 옥스퍼드대학과영국의몇몇영지그리고몇몇독일과스위스도시들의회계장부가이것을명백하게증명한다.

다른한편, 예술작품, 그시대노동자들의참된예술품이라할만한시청혹은사원뿐만아니라, 가장단순한가재도구인자수, 촛대, 찻잔혹은항아리를치장했던장식의양을보라. 그러면여러분은그시대의노동자는우리시대의조급증, 성급함, 피로감을몰랐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는서두르지않고금속을불리고, 소상을만들며, 옷감을짜고자수를놓았다. 오늘날에는극소수의노동자들, 즉예술가들만이그렇게일할수있다. 교구, 길

오랜세월이흐르는동안이운동의의미는어용역사가와교회역사가들에의해완전히왜곡되었고, 이제야비로소사람들은이것을어느정도이해하기시작하고있다.

한편으로이운동의표어는, 양심의명령외에는어느것에도복종할의무를갖지않는개인의완전한자유였고, 다른한편으로는공산주의였다. 훗날국가와교회가운동의가장격렬한옹호자들을소탕하고, 운동을교묘히자신에게유리하게바꿔버렸을때, 운동은혁명적성격을상실하고루터의종교개혁으로변질되였다.

운동은설교로시작되었고, 몇몇장소에서는무국가적이나키즘을실천적으로적용하기도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종교개혁식들과혼합된것이였다. 그러나그당시에는불가피했던종교개혁식들을걸어내면, 우리는이운동이지금우리가대변하고있는사상적흐름과본질상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즉우리는그것에서고유의양심이인간의유일한법이되어야한다는원칙아래, 국가적인것이든신적인것이든모든법이부정되고있음을발견한다. 우리는운명의유일한관리자로서의공동체를방어하는것, 한마디로공산주의와평등을실천하려는노력을본다. 그것은봉건주로부터땅을되찾아주고, 돈이든육체적인것이든국가에대한모든봉사를중단시키는것이였다. 예를들어사람들이성서의권위를인정하느냐고물었을때, 재세레파운동철학자들중하나인덴크 (H.Denck) 는스스로성서에서 자신을 위해발견한규칙만이인간행동에서의무적으로지켜야할유일한것이라고답했다. 이모호한공식은교회용어에서차용한것이다. 이'책 (성서)'의권위는공산주의와권력에대한'찬'과'반'의논거를손쉽게찾을수있게하고, 자유의선언에대한문제에서는특유의불분명한태도를보인다. 이모든것은운동의종교적색채와함께그속에패배의맹아를포함하고있었다.

도시에서발생한운동은즉시농촌으로확산되였다. 농민들은어느누구에게도복종하기를거부했다. 깃발대신에창에낀장화나짚신을꽂았고, 지주들이점유한공동체토지를빼앗았으며, 농노제도의족쇄를부수었다. 또한그들은성직자와재판관을몰아내고, 자유공동체로조직되어갔다. 한동안이반란은갖태어난국가의존립자체를위협하기도하였다. 왕혹은제국의권력은단지화형, 고문그리고교수대의도움으로수년동안십만명이상의농부들을살해한후에, 교황과개신교의지원을받아이반란에중지부를찍을수있었다. 루터는교황보다도더많은농부들을죽음으로몰아넣었다.

재세레파운동으로부터탄생한루터의종교개혁은초기에민중운동의도움을많이받았으나, 민중을살육하고민중운동을탄압하는데전력을다해도움을주었다. 이거대한지적흐름의생존자들은'모라비아형제단'으로몸을피웠으나, 이형제단도교회와국가에의해탄압을받았다. 무사히살아남은소규모집단들만이구조되어일부는남동러시아로, 일부는독일

이 침략과 전쟁들은 불가피하게 유럽을 새로운 시대로, 전쟁국가의 시대로 진입하게 만들었다. 전쟁국가들은 모든 다른 도시들을 왕후는 대공의 도시로 '연합하기 위하여', 즉복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도시들이 스스로 작은 국가들로 변신하자, 후자는 강력한 국가에 병합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VII

그러나 자유 공동체와 중세의 연방 체제에 대한 국가의 승리는 방해 없이 완성될 수 없었다. 심지어 국가의 최후 승리를 의심할 만 한 시기도 있었다.

중부 유럽의 도시들과 넓은 농업 지대에서 민중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식과 외형 면에서 종교 운동이었지만, 의식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순수 공산주의적 운동이었다.

14 세기에 우리는 프랑스 (1358 년경) 와 영국의 (1381 년경) 두 농민 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역사에서 자크리의 반란¹⁴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농민 지도자 중의 하나인 와트타일러 (Wat Tyler) 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 두 운동은 당시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주로 봉건 주에 대항한 것이었다. 진압되었지만, 영국에서 이민중봉기는 농노제도에 중지를 찍었다.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반란은 농노제도의 발전을 저지하였고, 그것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농노제도는 독일과 동부 유럽에서 이룬 것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16 세기에 유사한 운동들이 보헤미아의 '후스 (Huss) 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의 '재세례파'¹⁵라는 이름으로 중앙 유럽에서 점화되었다. '후란의 시대'¹⁶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와 유사한 운동이 17 세기 초에 러시아에서도 일어났다. 서유럽에서 이것은 봉건 영주와 봉건 지주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원시 국가를 위한 교회 법과 로마 법에 대항한 반란이었다.

¹⁴ 역주 - Jacquerie. 백년전쟁 중 북프랑스에서 발생한 농민 폭동. 자크리는 당시 농민의 대표적 이름이었던 자크를 집합명사화한 명칭이다.

¹⁵ 역주 - Anabaptist. 재침례파 (再浸禮派) 라고도 한다. 신앙고백이 불가능한 영유아 시기, 관습적인 세례가 아닌 자각적인 신앙고백 이후의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라고 주장한다.

¹⁶ 역주 - 러시아의 이반 4 세의 즉음을 계기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의 시대 (1584-1613).

드 그리고 전 도시에 속한 교회와 공공 건물들을 장식하기 위해 무료로 행해 진 작업을 들여다 본다면, 즉 이 건물들에 바친 그림, 조각, 철화는 은으로 만든 장식 혹은 목공과 석공의 자잘한 물건들과 예술 작품들과 같은 현물들을 들여다 본다면, 우리들은 발명 정신의 흔적을,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를, 모든 노동에 영감을 주었던 자유 정신을, 길드에서 발전된 형제적 연대의 정신을 발견할 것이다. 사람들은 수공업의 실질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형제애와 사회성의 관계로 결합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길드의 규칙에 따르면, 언제나 두 '형제'가 병든 '형제'의 침대에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염병이나 역병이 창궐할 때면 상당한 자기 희생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사망시에 길드는 죽은 형제 혹은 자매의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과 비용을 담당하고, 그의 시체를 매장하여 부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의무라 생각했다.

'12 세기 봉건주의의 숲속에 생긴 오아시스'는 현대 도시의 주민들 위에 드리워진 극단적 빈곤, 억압,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유로운 협약과 자유로운 자기 주도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정치적 자유의 보호를 받으며, 이들 도시들에서 새로운 문명이 빠른 속도로 생기고 발전하였다. 그토록 빠른 속도는 전후의 어떤 시기에 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대의 모든 산업은 이들 도시에서 비롯되었다. 300 년 동안 이곳에서 수공업과 예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획득하였다. 때문에 우리의 세기는 생산 속도에서만이 시대를 능가할 뿐 질적으로는 종종 그에 미치지 못하고, 예술적 세공에서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예술을 소생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미술의 아름다움에서 라파엘로와, 힘과 감각에서 미켈란젤로와, 과학과 예술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시와 언어의 아름다움에서 단테와 혹은 건축에서 리옹, 랭스 (Reims), 쾰른의 성당 건축가와 - 빅토르 위고에 따르면 이성당의 '건축가'들은 민중들 자신이었다. -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플로렌스와 베니스, 브레멘과 프라하의 시청, 뉘른베르크와 피사의 탑과 같은 수없이 많은 아름다움의 보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예술의 기념비들은 자유로운 도시 시대의 창조물이다.

이 문명이 가져온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일별하기 원한다면,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의 둥근 지붕과 노르만족의 줄렬한 아치들을 비교해 보라. 혹은 라파엘의 그림들과 바이외¹⁰의 단순 소박한 자수와 양탄자들을, 뉘른베르크의 수학적 물리적 악기와 시계들과 전 시대의 모래시계들을 비교해 보라. 또는 단테의 낭랑한 언어와 10 세기 야만족의 라틴어를 비교해 보라. 이 두 시대 사이에서 완전 새로운 세계가 자라났다.

¹⁰ 역주 - 바이외 (Bayeux). 프랑스 바스노르망디 주의 칼바도스 데프르트망 (Département) 에 있는 도시로 장식품의 생산으로 유명하다.

또하나의영광된시대인고대그리스도시국가의시대를제외하면, 인류가이시대처럼빠른속도로발전한적은없었다. 2, 3 세기만에인간이그렇게심오한변화를겪은적이없었고, 자연력에대한지배력을그정도수준까지발전시킨적이없었다.

당신은우리가자랑하는현대문명의성공들을생각할수도있겠다. 그러나여전히현대문명은중세의자유도시들사이에서자라난문명의자식일뿐이다. 현대과학을창조한나침반, 시계, 인쇄기같은많은위대한발명들, 새로운세계의발견, 화약, 중력의법칙, 증기기관을만들수있게한기압의법칙, 화학이론, 로저베이컨 (Roger Bacon) 이제시하고이탈리아대학들에서수립된과학적방법은자유도시들과공동체자유외의보호아래발전된문명의유산이아니라면무엇이란말인가?

내가이공동체들의역사가가득한당과내부의싸움들을잇은것처럼보일수도있다. 길거리의난투극들, 봉건권력자들과의필사적인투쟁, ‘구췌수공업자들’에대한‘신수공업자들’의반란, 이투쟁의유혈과복수에대해서잇은것처럼보인다.

아니, 난이것을절대로잇은것이아니다. 그러나중세이탈리아의두역사학자레오 (Leo) 와보타 (C.Botta) 처럼, 페라리 (G.Ferrari), 지노카포니 (M.Capponi) 와많은다른학자들처럼, 나는이들당파들의갈등은도시의자유로운삶을위한담보라고생각한다. 그러한갈등이있을후에도시의삶은새로운일보를나아갔다고생각한다. 레오와보타는중세이탈리아도시들에서발생한길거리충돌을자세히연구하고, 이충돌들과더불어완성된거대한진보, 즉모든주민들에대한행복의보장, 새로운문명의탄생에대한연구를끝내면서다음과같은아주신뢰할수있는견해를피력하였다. 우리시대의모든혁명가들은이것을기억해야할것이다. “인간의이성이그런것처럼, 코뮌이 **자신의 환경 속에 모순과 갈등을 허용할 때**, 바로그럴때에만도덕적완전성을제시하고, 그럴때에만공공질서를유지한다.”

그렇다. 이갈등은자유롭게허용된갈등이고, 그어떤외적인세력의개입도없는갈등이며, 국가의개입이없는갈등이다. 이것은국가가서로싸우는세력중하나에게유리하게저울의한쪽을엄청난무게로누르는것과는다르다.

이두연구가와유사하게나는이렇게생각한다.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대립하는 것들은 강제로 결합되어, 단일한 질서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개개인들과 작은 유기체들은 그들을 삼키는 거대하고 단일한, 무채색과 무생명인 전체의 희생이 된다.’**

자유도시들이국가가되고, 농촌과외곽도시들에대한지배권을확대하고, 즉‘거대한무채색의, 무생명의전체’를창조하려고애쓰기전까지, 이들도시들이내적인갈등을통해매번더젊고강하게자라고성장한이유

주, 왕그리고사제의궁에침투하기시작하여곧대학에서사랑받는교과목이된로마법의영향아래, 처음에는반목했지만잘어울리게된두가르침의영향아래인간의이성은서서히타락하고, 결국사제와법률가가점점더많은영향력을갖게되었다.

사람들은권력을사랑하기시작했다. 도시에서하층수공업자들의반란이일어나면, 사람들은누군가구원자에게도움을청하게되었다. 그들은독재자혹은도시왕을선출하고반란자들을진압하기위한무제한의권력을이들에게부여하였다. 그리고독재자는교회와동방의전제국가로부터배운온갖세련되고잔혹한방식으로권력을이용하였다.

교회는그를지지하였다. 최고성직자에게복종하고교회의충실한무기가되는성서적왕의출현은교회의꿈이었다! 이외에도교회는열성적으로합리주의정신과‘이교적’사상을증오했다. 전자는제 1 차르네상스시대에즉, 12 세기의르네상스시대에자유도시를지배하던정신이었다. 후자는새로발견되고대그리스문명의영향을받아사람들에게자연으로의복귀를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교회는교황, 성직자, 교회일반에대항하여, 원시기독교의기치를걸고봉기하려는흐름을증오했다. 교회가애호하던무기인화형, 고문, 교수대가이교도들을향해투입되었다. 이때교황, 왕혹은독재자중누가무기가되든지교회는상관하지않았다. 화형, 고문대그리고교수대만이이교도들과의싸움에서제구실을하였다.

로마법률가들과성직자들. 이두집단의영향아래자유로운자기주도와자유협약의오랜연방주의정신은소멸되고, 훈육의정신, 지배와피라미드형조직의정신에자리를내주고말았다. 부유한계급과마찬가지로민중도밖으로부터구원자를찾았던것이다.

구원자인왕은소란스런도시의민회에서멀리떨어져자신이건설한도시에부를축적하고, 자신에게복종하는귀족들과농민들의호위를받았다. 왕이도시대문앞에등장하여빈자들에게는부자들로부터의강력한보호를, 부자들에게는빈자들의폭동으로부터의보호를약속했을때, 이미권력의독에중독된도시는그것을거부할힘이없었다. 그들은왕에게대문을열어주었다.

이외에도 13 세기부터몽골족들은동유럽을정복하고파괴하였다. 이제모스크바에몽골의칸과정교회의영향을받아새로운황제체제가생겼다. 그다음에터키족이유럽을침략하고, 국가를건설하였다. 이들은이과정에서모든것을파괴하였고, 1453 년에는빈까지도달하였다. 터키족을저지하기위해유럽의중심인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에서강력한국가들이탄생하였다. 동시에유럽의다른쪽인스페인에서모로코인들의추방은카스티야 (Castilla) 와아라곤 (Aragon) 에서새로운강력한전제왕권이수립되는가능성을제공하였다. 이전제정권은로마교회와종교재판, 칼과고문실에의지하였다.

16 세기에왕과교회라는이두패거리의협력은최고에달했다. 왕은이미자신의경쟁자들인영주들위에군림하게되었으며, 다음단계에그들의손은이제자유도시들을제압하기위해움직였다.

그렇지만 16 세기의도시도더이상우리가 12, 13, 14 세기에보았던 것들이아니었다. 도시는 12 세기의해방혁명으로부터탄생되었지만, 주변농촌주민에게도심지어피난처로서후에도시성벽의경계로이주하여수공업을시작한도시민들에게도자신들의평등사상을확장시킬과감성을갖지못했다. 모든도시들에단순히‘가문’이라고불리는 (12 세기의혁명을주도한) 구가문과 (늦게도시로이주한) 신가문사이의차별이 나타났다. 구‘상인길드’는새로운이주자들을자신들의영역에받아들이려하지않았고, ‘신수공업자들’을자신들의상거래에참여하도록허용하지않았다. 도시의단순한상인길드는도시의재정을위해물건을팔던도시의상업에이전트였다. 그들은이제중개인과거간꾼으로변신하여해외무역을통해부를축적했고, 도시생활에동방의화려함도도입하였다. 나중에‘상인길드’는지주와성직자와연합하거나독점권을위해, 부에대한권리를위해가장가까운왕에게의지하였다. **공동체성을 포기하고, 사적인 것으로 변한**상업은마침내자유도시를무너뜨리고말았다.

이외에도처음에도시와민회를구성했던구수공업자길드는자신들이향유하던권한을신수공업자길드에게인정하려하지않았다. 신수공업자들은혁명의방법을통해평등권을확보해야했다. 혁명은실제로우리가역사를알고있는모든도시에서일어났다.

그러나혁명은대부분의경우에모든삶, 수공업, 예술의혁신을낳았다. 이런현상은폴로렌시아에서분명하게발견된다. 하지만혁명은다른도시들에서 **빈자들 (popolo basso)** 에대한 **부자들 (popolo grasso)** 의승리로, 운동의진압으로, 무수한유형과처형으로끝났다. 특히, 영주들과성직자들이싸움에개입한곳에서그러했다.

말할것도없이, 마키아벨리즘을익힌왕들은자유도시의내부적인삶에개입할때, ‘부자들의박해로부터빈자들을보호한다.’는구실을내세웠다. 후에황제가되는모스크바대공은부자들로부터‘최하층민’과‘서민’을보호한다는구실로노브고로드와프스코프를정복하였다. 이러한현상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모든곳에서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인간의 개념 자체가 변화했기때문**에도시는파멸할수밖에 없었다. 교회법과로마법은인간에대한이해를왜곡시켰다.

12 세기의유럽인은본질상연방주의자였다. 그는자유로운자기주도, 자유협약, 자발적연합을옹호하였고, 사회의출발점을고유의개성에서찾았다. 그는복종에서구원을찾지않았고, 사회구원자의도래를기다리지않았다. 기독교적혹은로마적가르침은그들과아무상관이없었다. 그러나한편으로언제나권력지향적이었고, 영혼, 특히신자들의노동을지배하려했던기독교회의영향아래, 다른한편으로 12 세기부터강력한영

가바로이것이다. 거리에무기가부딪치는소리가들려도자유도시들은변성한반면, 200 년후바로그문명은국가의형성으로초래된전쟁의소음속에서무너지고말았다.

문제는, 자유도시들에서투쟁은개인의자유의획득과보존, 연합의원칙, 자유로운연합과공동의행동권을위하여진행되었다. 이와는달리국가개인의억압을위해, 자유로운협약의파괴를위해, 왕, 재판관, 성직자즉국가앞에서모든국민들을똑같은노예로만들기위해전쟁하였다는데있다.

여기에모든차이가있다. 죽이는투쟁과갈등이있고, 또한인류를진보시키는투쟁과갈등이있다.

VI

16 세기에새로운, 현대적야만족들이나타나중세의모든자유도시문명을파괴하였다. 물론완전히파괴하지는못하였지만, 여하튼그들은문명의성장을적어도 2-3 백년억제하였고문명을다른방향으로향하게만들었다. 야만족들은개인의손발을묶고개인의모든자유를박탈하였다. 그들은사람들이자유로운자기주도와자유로운협약위에수립한연합을잇고모든점에서유일한통치자에복종할것을요구하였다. 그들이내세운이유에따르면사람들사이의모든직접적관계는파괴되었다. 따라서국가와교회만이사람들을연합시킬권리를가진다. 또한국가와교회만이산업적, 상업적, 법적, 예술적, 사회적그리고개인적이해를관리할소명을갖는다는것이였다. 그러나이러한이해관계를위해 12 세기의사람들은 스스로직접연합하는것이일반적이였다.

그러면야만족은누구였는가? 그것은바로국가였으며, 그것은전쟁지휘관, 로마전통의후계자들인재판관, 성직자, 즉세세력사이에새로나타난삼각연합이였다. 세세력은자신들의지배를상호보장하기위해서연합하였고, 사회를지배하고결국사회를억압하게될유일한권력을만들었다.

자연스럽게다음과같은질문들이제기된다. 이새로운야만족들은중세자유도시와같은강력한조직들을어떻게정복할수있었는가? 이들은이를위한힘을어디로부터퍼올렸는가?

그들에게이힘을제공한것은무엇보다농촌이었다. 중세도시들은시
민을해방시켰지만, 이와동시에, 고대그리스도시들이노예를해방시킬
수없었던것처럼, 농민을농노상태에서해방시킬수는없었다.

사실도시를해방시킬때, 스스로수공업과농업을결합했던도시민들
은거의모든곳에서농촌거주자들을자신들의해방사업에끌어들려고
노력하였다. 2세기동안에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도시민들은봉건영
주와치열한전쟁을치렀고, 이투쟁에서놀라운영웅심과집요함을보여주
었다. 그들은지배자들의성을정복하고그들을둘러싼봉건제도를붕괴시
키기위해마지막힘을쏟아부었다.

그러나그들이이룩한성공은불완전했다. 전쟁에지친나머지그들은
영주들과평화조약을체결하였고, 이때농민들의이익을희생시켰다. 도
시의경계밖에서, 도시는단지전쟁을중단할목적으로농민을영주의손에
넘겨주었다. 이탈리아와독일에서도시는영주가같은도시에산다는것을
조건으로그를시민이라불렀다. 다른지역에서도시는농민에대한지배권
을영주와나누어가졌고도시민스스로가농민을지배하게되었다.

대신영주는자신들이경멸하고미워했던도시민에게복수하였다. 영
주는자신의귀족가문들사이의적대감과복수때문에도시의거리를피로
물들였다. 물론그들은도시조함을무시했으며, 불화를이곳의공동재판
소에서해결하려하지않았다. 그들은손에무기를들고길거리에서해결하
는것을선호하였다.

이외에도귀족은남비벽, 음모, 호화로운생활, 왕과주교의궁전에서
습득한교육으로도시민을타락시키기시작하였다. 그들은도시민을자신
들의끝없는다툼속으로끌어들였다. 결국도시민도귀족을모방하기시작
하였다. 그들은주인이되고도시경계밖에거주하는농민들의노동으로부
를축적하기시작하였다.

이런조건에서왕, 황제, 차르, 교황은통치권을확보하였고, 농민들
의지지를얻어도시들을복종시킬수있었다. 농민들이즉각그들을따르지
않는곳에서, 그들은여하튼농민들이원하는것을할수있게두었다. 그결
과농민들은도시를방어하지않았다.

왕의권력은농촌에서, 농촌주민이둘러싸고있는무장한성에서서서
히성숙되고있었다. 12세기에왕의권력은단지이름만으로존재하였다.
지금우리는도둑의우두머리들도그러했음을알고있다. 우두머리들은티
에리가증명한것처럼스스로왕의칭호를가졌다. 그러나당시에그것은거
의아무의미가없었다. 스칸디나비아어부들은자신들의‘어망의왕’을가
졌고, 심지어거저자들에게도자신들의‘왕’이있었다. 왕, 제후, 코농¹¹은그
저일시적인우두머리였다.

서서히그리고지속적으로여기저기에서더강력하고혹은더교활한제
후가다른제후들보다우위를차지하게되었다. 교회는물론그를지원할준
비가되어있었다. 강제, 음모, 매수, 필요하다면갈과독약을수단으로제
후는다른봉건영주들에대한지배권을확보하였다. 모스크바의황제권력
은그렇게해서만들어졌다.¹² 왕권이나타난곳은소란스런민회, 타르페
이아의절벽¹³ 혹은강을가진자유도시들이아니었다. 폭군들을위한권력
은언제나지방에서, 농촌에서생겨났다.

프랑스에서폭군들이랭스혹은리옹에자리를잡으려했으나실패했
고, 이를대신하여파리를선택했다. 당시파리는부유한농촌마을로둘러
싸인작은도시들과농촌마을의집합체였다. 하지만그곳에민회가있는자
유도시는없었다. 영국에서왕권은인구가밀집한런던의대문인웨스트민
스터에자리잡았다. 러시아에서는수즈달과블라디미르에서실패한후
에, 왕권은모스크바강변부유한농촌마을들안에세워진크렘린에자리를
잡았다. 노브고로드혹은프스코프, 뉘른베르크혹은플로렌시아에서는
절대로왕권이강화될수없었다.

이웃농민들은왕에게식량, 말, 인력을제공하였다. 탄생중인권력자
들은이외에도공동체의상업이아닌왕의상업으로부유해졌다. 교회가그
들을후원하고옹호하였으며, 자신들의재산으로그들을지원하였고, 마
침내왕의도시를위하여특별한성인과기적을만들어냈다. 교회는파리의
성모혹은모스크바의성모를거룩하게만들었다. 자유도시들이주교의권
력으로부터해방되고젊은혈기로전진하려는바로그때, 교회는태동하던
왕을수단으로서서히자신들의권력을부활시키는작업을진행했다. 교회
는결국자신이선택한사람의요람을특별히친절한배려, 향, 황금으로감
쌌다. 교회는그와연합하여자신의권력과영향력을회복시키기를원했던
것이다. 파리, 모스크바, 마드리드, 웨스트민스터등모든곳에서교회가
어떻게왕혹은황제의요람을정성스럽게보호하는가를우리는알고있다.

교회는국가정신에입각한강한조직을갖고있었다. 또한모든사회계
급에서찾아낸강한의지와기민한지성을소유한사람들을이용하여활동
하였다. 교회는음모를꾸미는데능숙하였으며, 로마와비잔틴법에정통
했다. 교회는자신의이상을즉성경의정신에입각한강력한왕권의확립을
성취하기위해집요하게일했다. 왕은제한없는권력을갖지만, 최고성직
자의명령에순종하며, 교회의손안에든세속의무기일뿐이었다.

¹² 코스토마로프의 『러시아에서군주제의기원』 을, 특히 『유럽통보』 에게제된것을
참조하라. 코스토마로프는자신의 「자료집」 출간을위해이문물을부드럽게고쳤다. 아마
검열의요구때문인것같다.

¹³ 역주 - Saxum Tarpeium. 로마의카피톨리움남서쪽에위치한절벽으로, 이곳에
서범죄자를떨어뜨려죽였다.

¹¹ 역주 - Konung. 왕을의미하는옛북유럽어.